

민선7기 공약이행점검을 위한

2019 아산시 시민배심원 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

2019. 12.



내 용 목 차

2019 아산시 시민배심원 회의결과 및 권고안 요약문	3
제1장 들어가며	17
1. 아산시 시민배심원 운영 배경	17
2. 시민배심원 운영 목적 및 방향	18
3. 시민배심원 운영 개요	20
제2장 주민배심원제의 이해	25
1. 숙의적 의사결정	25
2. 공약사업 심의를 위한 주민배심원 회의	27
3. 해외 실시 주요사례	29
4. 시민배심원 운영 배경과 의의	32
제3장 시민배심원 운영 절차	37
1. 시민배심원 운영 기조 및 흐름	37
2. 시민배심원 운영 지원 조직	39
3. 시민배심원 모집 절차	40
4. 시민배심원 예비회의 및 본회의	43
제4장 시민배심원 운영 결과	53
1. 시민배심원 최종 심의 결과 및 권고안 내용	53

2. 분임별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60
가. 부영이 (1분임)	61
나. 복지천국 (2분임)	73
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대한민국 관광의 보고 아산! (3분임)	91
라. 은행나무 길 달 밝은 밤 (4분임)	104
마. 시샘 (5분임)	116
3. 분임별 토의 내용 및 결과	132
가. 부영이 (1분임)	132
나. 복지천국 (2분임)	139
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대한민국 관광의 보고 아산! (3분임)	145
라. 은행나무 길 달 밝은 밤 (4분임)	151
마. 시샘 (5분임)	157
제5장 시민배심원 활동 후기	165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71
부록	175
1. 1차 회의 교육자료	175
2. 3차 회의 교육자료	188

**아산시 시민배심원
회의결과 및 권고안 요약문**

2019 아산시 시민배심원 회의결과 및 권고안 요약문

(2019년 12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민선7기 단체장의 공약 이행 과정에서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여 조정공약에 대한 변경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주요 공약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시민배심원 회의를 운영함.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과정에서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 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고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함. 1차 및 2차 예비회의에서 배심원 교육과 공약사업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고, 3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서 회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이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배심원단 심의 결과와 권고 의견을 아산시에 전달하고, 2020년 2월~3월 내에 심의 결과 공포와 시민배심원 권고 의견 수용여부 공시를 제안함.

1. 회의 개요

- 회의명 : 민선7기 공약이행 점검을 위한 2019 아산시 시민배심원 회의
- 기간 : 2019년 11월 15일(금), 11월 29일(금), 12월 13일(금)
- 대상 : 아산시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 인원 : 시민배심원 32명
- 구성방법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주최·주관 : 아산시·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내용 : 민선7기 아산시장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5건) 및 공약이행 평가 (15건)

■ 회의목적

-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민선7기 단체장 공약 이행 과정에서 일부 조정 공약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며 주요 공약사업의 이행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
-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환류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최적의 공공재 생산을 지향함.
-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함.
- 다양한 이웃과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理解)와 관심을 제고하고, 사적인 이해(利害)를 넘어선 사익과 공공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역의 비전을 모색함.
- 공약이행 점검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정책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협업하는 과정으로 시민배심원 회의를 운영함으로써 신뢰행정 발굴과 확산,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성숙한 지방자치와 민주시민의식 고양에 이바지함.

2. 추진방향 및 진행과정

가. 추진방향

-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여 주민의 대표성과 참여기회 평등성을 확보함.
- 최종 선발을 통해 회의에 참여하는 배심원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민선7기 아산시의 공약 조정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 투표권 행사 및 일부 공약의 개선방안·아이디어를 마련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함.
- 비교적 단순하고 피상적인 의견수렴과 고정된 선호의 단순 취합이라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과 선호변경이 가능한 공론조사 방식의 토의 과정을 채택함.

- 시민배심원단의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지자체 공약담당자는 심의 및 평가 안건(정책공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
- 운영관리에 있어서 모든 절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며 시민배심원단 스스로 운영하여 나가도록 유도함.
- 또한 원활한 토의 진행을 돕기 위해 분임별 촉진자(facilitator)도 함께 참여하고, 현장실무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함.
- 시민배심원 논의 결과와 이에 대한 아산시의 수용 여부는 일정기간 동안 아산시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함.

나. 진행과정



■ 시민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 사회여론조사연구소 ARS를 통하여 1차 125명의 응답자 추출, 2차 전화 면접을 거쳐 최종 40명 선발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 (제일호텔) : 11.15(금) 14:00~17:35

- 위촉장 수여
- 매니페스토 운동과 시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주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시민배심원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 시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 2차 예비회의 (아산시청) : 11.29(금) 14:00~17:35

- 공약 안전 설명회 (주관부서 ⇔ 시민배심원)
 -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배심원단 질의에 대해 답변
 - 조정안건의 경우, 공약 변경에 대한 현실적인 사유와 대안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 설명 종료 후 시민배심원 자유 토의

■ 3차 본회의 (아산시청) : 12.13(금) 13:30~17:50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전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찬반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 분임별 공약이행 평가 : 공약의 장점,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분임 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시민배심원단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승인)
 - 공약이행 평가 : 전체 시민배심원단 합의로 분임권고안 최종 승인

3. 심의 안건에 대한 최종 결과

가. 공약 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최종 투표 결과

- 총 5개 공약 조정 승인 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5개 안건이 배심원단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음.

분임명	연번	토 의 안 건	투표결과	
			승인	미승인
부영이 (1분임)	1	곡교리 수문 및 배수펌프장 설치 ※ 공약명 변경	27	2
			기권: 1	
복지천국 (2분임)	2	배방월천초.모종중 탕정일반고.장영실과학기술고 신설추진 ※ 공약명 변경, 일부폐기	24	5
			기권: 1	
	3	충남도와 연계한 70세 어르신 버스비 무료추진 ※ 공약명 변경	22	6
			기권: 2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대한민국 관광의 보고 아산 (3분임)	4	쌀조개섬 수상테마파크 조성 ※ 공약명 변경	25	3
			기권: 2	
은행나무 길 달 밝은 밤 (4분임)	5	친환경 농산물광역물류센터 유치 ※ 공약명 변경	25	4
			기권: 1	

나. 주요 공약 실천계획 평가

■ 공약이행 평가 안건 15개에 대하여 분임별 평가토의를 거쳐서 총 51개의 권고안이 마련되었고, 이 권고안은 전체회의에서 전체 배심원단 합의로 최종 승인되었음.

■ 부영이 (1분임) : 11개 권고안

- 하자없는 '도로 및 인도공사 책임제 시행'
 - 시민이 참여하여 도로의 하자 및 기타문제점 등을 조사하고 발굴하는 제도를 적극 운영해야 할 것임.
 - 가스·수도 배관 등 다양한 매설물들의 통합 관리를 위한 지하시설물을 개량할 필요가 있음.
 - 전신 지중화를 통해 전기·통신 등을 일괄 관리하고 미관도 개선했으면 좋겠음.
 - 전동휠체어와 자전거 이용이 안전하고 용이하도록 도로·인도가 개선 되었으면 좋겠음.
- 건축물 소방·내진 설치기준 적용 및 조사강화
 - 법규 위반 단속 이후 사후조치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빈 집이나 빈 상가의 경우 점검하여 전기·가스 등 화재 발생 요인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조사 인력을 더 보강하여 점검을 더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건축물 안전 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음.
- 안전사각지대 CCTV 확대
 - CCTV 확대도 좋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홍보·계도 등으로 시민들에게 주지시켜야 하겠음.
 - 사각지대·취약지대 CCTV 보강 필요함.

- CCTV를 동일한 검은색으로 하기보다 용도에 따라 보기 좋은 색상이나 디자인 등을 적용하면 좋겠음.

■ 복지천국 (2분임) : 5개 권고안

-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조속 추진
 - 병원 내의 편의시설(커피숍이나 매점 등)을 장애인이나 취약계층들에게 불하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음.
- 행복아산 시민아카데미 시민강연 문화축제 확대추진
 - 강사인력을 다양한 직능별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강사발굴을 위해 읍면동사무소와 각 마을 이장들을 통해 진행하면 좋겠음.
 - 강연내용이 성공사례 뿐만 아니라 실패사례도 강연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자발적 신청과 함께 강사 추천을 받아 강사 인력을 증원하면 좋겠음.
 - 강연장소를 마을회관 등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하고 단순히 강연만 진행하기보다 인근 주민들의 재량을 펼칠 수 있는 문화공연의 장도 함께 열어 흥겨운 마당으로 만들면 좋겠음.

■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대한민국 관광의 보고 아산! (3분임) : 10개 권고안

- 곡교천변을 활용한 복합체육여가공간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 은행나무 길은 정비가 잘 되어 있지만 반대편은 주변 경관 정리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은행나무 반대편은 진출입로가 위험해서 개선해야 할 것임.
 - 시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잔디를 심고 산책할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정주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중요할 것임.
 - 집중호우나 홍수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겠음.
- 1인 1생활체육 추진

-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지역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체육 시설 프로그램 개선을 하면 좋겠음.
- 아산둘레길(산성길, 호수길, 천변길, 뒷동산길 등) 단계별 조성
 - 둘레길의 특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신정호처럼 걷기 대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이 다시 찾게 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둘레길 구간 완주 스탬프를 건의하며 아산사랑 상품권 등의 소소한 재미를 주어 참여를 권장하고 둘레길을 더 찾게 할 필요가 있음.
 - 타도시의 모범 사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시민의 둘레길 걷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함.

■ 은행나무 길 달 밝은 밤 (4분임) : 12개 권고안

- 친환경급식 확대 (학교 외)
 - 시지원금으로 식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아산시의 판매처와 아산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우선 구입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조리사가 있기 때문에 조리를 해서 지원하기보다는 원물로 지원하는 것이 좋으며 시지원금도 식비에 책정된 만큼 원물로 제공하면 좋겠음.
 - 공급 지원체계가 미정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수요파악과 지원형태를 명확하게 정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아산시의 친환경농가가 7%로 대량 생산·소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체 공급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임.
 - 굳이 친환경이라는 기준에 얽매이기보다 좋은 품질의 먹거리를 아산 시민에게 공급하겠다는 목표에 방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음.
- 임기 내 15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 나무의 양적 증대에 중요하지만 관리미흡으로 인한 미관상의 문제나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예산의 증액을 통해 질적인 관리감독이 꼭 해야 할 것임.

-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떨어지는 낙엽수보다는 도시미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교목같은 침엽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침엽수의 단점인 겨울철 그늘로 인한 빙판위험성은 도로관리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수종을 다양화하면서도 환경과 미관의 안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은행나무가 시목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심기보다는 특정지역을 은행나무길 조성을 통해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생활 거주지역은 다른 나무로 교체하여 진행하면 좋겠음.

○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 주변 지역 주민들이 사유지처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할 것임.
- 자연보존을 최우선 목표로 진행하며 하천변 체육시설은 지양하고 시민편의를 위한 산책로와 휴식 공간 조성 정도만 진행하도록 할 것임.
- 정비가 제대로 하여 시민들이 아름다운 하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시샘 (5분임) : 13개 권고안

○ 도시재생의 차질없는 추진(장미마을, 배방모산역)

- 핵심적인 목적보다는 다양한 사업의 확장시도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낮고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명확한 사업목적과 사업진행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과 소규모극장을 만들어 주민들과 다른 지자체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집중이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여성성평등의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음. 온양행궁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역사재현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원주민인 유흥업소들도 생계를 위한 일이고 개인사유권이 있기 때문

에 강제성을 띄고 진행하기에는 모순이 있으며 이를 위해 제도나 계몽을 통해 더 이탈되지 않는 장소로 지도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해야 할 것임.

- 기존의 재생 현황부스 사용빈도가 낮고 경제활동활성화, 청년창업, 체험공간 등 진행 중인 사업이 많지만 실제로 정보를 알고 이용하는 시민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기존의 사용하지 않고 버려져 있는 공간을 재사용하는 방안을 간구해야 할 것임.
- 개발과 재생사업의 내용이 생소하기 때문에 재생사업의 '재생'이라는 단어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인식개선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풍기역 신설 추진

- 수요에 비해 교통 접근의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전철을 신설하면 이순신빙상장, 운동장, 체육관들의 이용이 늘어나 미래의 접근성이 원활해질 것이며 적자가 예상되지는 사업의 지속성과 인프라 확정을 위해서 전철의 신설이 필요할 것임.
- 신설할 역의 접근성을 높기 위해 마을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신설도 필요할 것임.

○ 장존~ 외암마을 간 4차로 확포장 공사

- 천안 예산 아산에서 외암마을로 가는 부분의 병목현상이 발생하며 아산시로 들어올 때 표지판이 없어 초행길의 경우 불법유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입간판을 설치해야 할 것임.

○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장 확대조성

- 공중화장실 시민로 시청으로 가는 길 옆으로 진출입시 병목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진출입의 이원화가 필요할 것임.
-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과 함께 상인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며 이를 위

해 자체 모니터링단 결성, 우수업체 선정 시 아산신문을 통한 홍보 및 상품권 증정, 우수업체 표시 등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할 것임.

- 시장 살리기 대책으로 대형마트를 입점하여 야채농산물은 상인에게, 공산품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여 구매부터 계산까지의 일괄쇼핑이 가능한 통일된 시스템이 필요할 것임.
- 온양온천시장만의 특징으로 로컬 푸드, 키즈카페 무료운영, 다른 마트와의 차별화 등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할 것임.
- 철거부지의 주차타워에 공공시설 입주를 통해 시장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제1장 들어가며

제1장 들어가며

1. 아산시 시민배심원 운영 배경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민선7기 단체장 공약이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이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민배심원 회의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약실천계획의 수립 주체가 대부분의 경우 소수 전문가라는 점에서 선거에서 단체장과의 직접적 계약 주체인 주민들의 체감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따라서 계획 수립 및 이행에서 주민들이 참여하여 숙의하는 과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민배심원 회의가 제안된 것이다.

이에 아산시는 공약의 주인인 주민들이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시민배심원단의 운영을 실시하게 되었다. 기존의 공모 형식 주민 참여 모델은 정보접근성이 수월하고 참여경험이 많은 주민들로 실질 참여 범위가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주민에게는 그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주민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데서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러므로 주민 참여 기회와 폭을 넓히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배심원단 구성에 있어서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선발은 탁월한 기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민배심원단 운영은 아산시 주민과 지자체가 직접 교감해 민선7기 공약실천의 기초와 방향을 설정함은 물론, 공약이행 과정에서 신뢰행정의 모델을 발굴·확산시킴으로써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아가자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2. 시민배심원 운영 목적 및 방향

민선5기부터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제안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본격적으로 공약실천계획서(공약실천매뉴얼)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계획이 전문가 위주로 수립됨에 따라서 참여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가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생활자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이 소홀히 다루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상존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공약실천계획서 작성과 확정, 이행과정에서 주민 참여 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산시 는 시민배심원 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시민배심원의 심의는 공약의 조정 적정여부 심의와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을 내용으로 하였다. 주민들의 참여와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된 시민배심원단의 학습 및 토의과정을 거쳐서 권고안을 도출하는 민주적 과정을 거쳤다.

우선, 시민배심원단 선발에 있어서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 전체의 참여기회의 평등성, 그리고 주민 대표성 및 심의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산시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인구비례(지역·연령·성별)에 의한 무작위로 시민배심원단을 선발하였다. 또한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체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주민, 그리고 정당의 당직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구비례에 의하여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배심원단을 대상으로 배심원단의 권한과 임무에 대한 교육과 공약실천계획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 스스로 공약실천계획의 실효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토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주민과의 소통·공감을 통해

신뢰행정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과거의 낙수형 방식의 일방적 주민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직접민주주의 원형인 아테네 민주주의 방식을 차용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시민배심원 운영 방향을 설계하였다.

3. 시민배심원 운영 개요

가. 추진방향

- 첫째,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지역·성별·연령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시민배심원단을 선발해 주민대표성과 참여기회 평등성을 확보하였다.
- 둘째, 최종 선발을 거쳐 회의에 참여하는 시민배심원은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공약 조정 안건에 대하여 최종 승인 여부 투표권을 행사하고 주요 공약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평가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였다.
- 셋째, 전문가 중심의 공약 이행 과정을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토의과정을 통하여 공약 이행을 점검하였다.
- 넷째, 비교적 단순하고 피상적인 의견수렴과 고정된 선호의 단순 취합이라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사 결정과 선호변경이 가능한 공론조사 방식의 토의 과정을 거쳤다.
- 다섯째, 시민배심원의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심의 안건(정책공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관리에 있어서 모든 절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며 시민배심원이 스스로 운영하여 나가도록 유도하였다.
- 여섯째, 원활한 토의 진행을 위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촉진자(facilitator)도 함께 참여하였고, 시민배심원의 논의 결과와 지자체 수용 여부는 일정기간 아산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였다.

나. 시민배심원 회의 개요

- 회의일자 : 2019년 11월 15일(금), 11월 29일(금), 12월 13일(금)
- 대상 : 아산시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 인원 : 시민배심원 32명
- 구성방법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주최·주관 : 아산시·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범위 : 민선7기 아산시장 공약 조정 적정 여부 심의 (5건) 및
공약 이행 평가 (15건)

다. 심의 안건 선정 및 심의 방법

- 공약 조정 안건으로, 대내외적 여건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공약 5개를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였다.
- 공약 이행 평가 안건은 분야별 공약사업 중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15개를 선정하였다. (5개 분임, 각 분임별로 2~3개씩)
- 심의 절차는 국회 본회의 운영 방식을 차용하였다. 우선 5개 분임(소위원회)을 구성하여 분임별로 안건을 배분하였다. 공약 설명회, 분임 현장조사 활동, 심층 분임토의를 통하여 공약 조정 안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 및 평가 안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이루어졌다. 분임토의에서 마련된 권고안들은 전체회의에서 시민배심원단 전원에게 보고되었고, 배심원단 전체 투표 및 동의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다.



제2장
주민배심원제의 이해

제2장 주민배심원제의 이해

1. 숙의적 의사결정

■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개념

- 숙의민주주의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개방적이고 폭넓은 참여와 함께 참여자들의 반성적이고 자기성찰적인 자세에 기반하는 진정한 숙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다양하고 풍부한 토의 과정이 참여자들의 선호의 전환을 동반함으로써 인해 결과적으로 집합적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¹⁾

■ 숙의민주주의 조건 : 참여기회의 평등성과 공정한 판단을 위한 무작위 선발

- 이러한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주민배심원제는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를 원형으로 하며, 여기서 주민배심원은 인구대표성, 민주성, 판단의 공정성을 위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인구비례에 의해 무작위로 선발된다.
- 특히 무작위 선발 방식은 참여자의 이해관계에 의한 자기 이익적 (self-interest) 판단을 줄이는데 유효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위 선발 과정에서도 공공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참여자를 가급적 배제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회의 진행과정에서 참여 기회의 평등성과 권한의 평등성 확보가 중요하다.

1) 숙의민주주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정규호(2005), "심의민주주의적 의사결정논리의 특성과 함의", 「시민 사회와 NGO」, 3(1) 참조. 숙의민주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시민참여 제도는 '시민의회(Citizen Assembly)', '시민배심원제(Citizen Jury)',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 등의 다양한 형태로 불린다. 본 회의 또한 숙의민주주의 이론을 토대로 운영하되, 회의 명칭은 회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다양하게 구상하였다.

■ **숙의민주주의 조건 : 정보 제공과 숙의적 의사결정**

- 숙의민주주의는 공공 사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심도 있는 토의 과정을 통한 선호 변경의 가능성과 공공적이고 합리적인 결과의 도출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 피상적인 여론 수렴이 아닌 정보제공과 숙의 과정을 통한 공론 확인의 절차로서 숙의 과정에서 다양한 차이들이 배제되거나 억압적 과정으로 숙의 과정을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은 권한의 평등성 원칙 아래에서 균등한 발언의 기회를 부여 받고 있다.
- 결과도출은 전원합의(컨센서스, Consensus)를 원칙으로 하되, 컨센서스 방식이 불가능할 경우 단순 다수결 방식을 채택한다.

2. 공약사업 심의를 위한 주민배심원 회의

■ 공모를 통한 일반 주민참여제도와 주민배심원제의 차이점

- 배심원제 운영은 피상적인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거나 보고회 수준의 형식적인 공약 심의가 아니라 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 그리고 토의의 과정을 거친 후 공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주민참여제도와 변별력을 가진다.
- 배심원제 형태의 주민참여제도는 소수 정책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인구비례에 의하여 무작위로 선발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민 참여의 폭과 기회를 넓힐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또한 공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간 토론을 통해 공공성을 고려한 평가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주민참여제도와 주민배심원제의 차이점

구분	일반 주민참여제도	주민배심원제
개념	개인 가치적인 인식수준 진단	무작위 선발 → 학습 및 토론 → 결정
방법	지자체 위촉 및 전화, 우편, 웹사이트 등을 통한 공모로 위원단 구성	학습 및 토론 필수, 능동적 참여
결과	고정된 선호집단의 단순 토론	학습 및 토론을 거친 공공적 판단
장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중심의 의견 수렴	학습과 토론을 통한 공공적 의사결정
단점	대표성과 정확성 결여	비용 및 시간 소요, 집단 내 다수의견 동조현상 발생

■ 배심원제의 일반적 절차



- 우선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출방식을 사용해 배심원단을 구성한다.
- 안전에 대한 분임별 심화 학습과 토론을 위해 예비회의에서는 분임을 나누고 심의 안전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다.
- 본회의는 분임회의와 전체회의로 구성되며, 분임별 심의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심층 토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전체 안전에 대한 전체 배심원단의 의결을 통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3. 해외 실시 주요사례

■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의 공론조사 주요 사례²⁾

- 영국의 경우에는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EU에 가입할 것인가, 탈퇴할 것인가?”라는 중요과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론조사를 실시하였다.
 - 영국은 이 문제에 대한 공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1995년 공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EU 가입 찬성 의견이 1차 조사에서는 45%였으나 2차 조사에서는 60%로 증가하는 등 참여자의 선호변경이 이루어졌다.
- 호주의 경우에는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내각책임제를 지속할 것인지, 공화제로 개헌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두고 공론조사를 실시하였다.
 - 호주는 입헌군주제의 내각책임제를 1999년 11월 국민투표를 통하여 공화제로 개헌한 바 있으며, 호주 정부는 국민투표에 앞서 1999년 9월부터 10월까지 공화제 개헌안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구분	직접투표로 대통령 선출	의회가 대통령 지명	입헌군주제 유지
1차 조사	50%	20%	26%
2차 조사	19%	61%	15%
의사 변경	-31%	+41%	-11%

- 덴마크의 경우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유로화를 도입할 것인가? 도입하지 않을 것인가?”를 공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2) 부산항만공사(2007), 『북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선정을 위한 공론조사 백서』.

- 덴마크는 2000년 8월 25일~27일 기간 동안 346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유로화 도입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하였다.
- 학습 및 토론은 덴마크남부대학교(Syddansk Universitet, 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에서 5시간여 동안 진행되었고, 토론회는 전국에 방송되었다.

구분	유로화 찬성	유로화 반대	미결정
1차 조사	45%	36%	19%
2차 조사	51%	40%	9%
의사 변경	+6%	+4%	-10%

- 미국의 경우 2003년 8월 네브라스카 공공에너지자원지부(NPPD)에서 109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체에너지 도입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하였다.
- NPPD는 1차적으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기존의 갖고 있는 의견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한 후, 이들 참가자 후보들은 8시간 동안의 토론회에 참석하여 무작위로 편성된 13~15명씩 8그룹으로 소그룹 토론을 하고 질의응답 및 숙의과정을 거쳐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분	풍력	보존	천연 가스	메탄	태양력	원자력	석탄	모른다
1차 조사	47%	2%	3%	4%	23%	14%	6%	2%
2차 조사	42%	21%	2%	7%	2%	10%	15%	1%
의사 변경	-5%	+19%	-1%	+3	-21%	-4%	+9%	-1%

■ **브리티시 콜롬비아 시민의회(British Columbia Citizens' Assembly)**

- 브리티시 콜롬비아 시민의회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의회의 선거법 개정을 위하여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소집되었다.
- 전·현직 공직자, 선거 출마자들의 직계가족, 정당 당직자들을 제외하여 인구비례에 의해 무작위 선발된 161명의 시민의원이 1년여 간의 학습 과정, 공청회 및 청문회 참여, 토론과정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덴마크 시민과학회의 (Danish Board of Technology)**

- 덴마크 시민과학회의는 1985년 출범 이래 오늘날까지 덴마크의 환경, 주거, 의료 등 광범위한 영역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해 오고 있다.
- 무작위 선발된 시민 패널의 결정은 의회에 권고 사항으로 제시되었고, 그 권고들은 대부분 입법화되었다.



4. 시민배심원 운영 배경과 의의

숙의민주주의는 공공사안에 대한 참여한 갈등과 다양한 의견들의 조정 실패라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로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합의해 가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도입, 운영하는 제도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약사업 심의를 위한 주민배심원단 운영의 경우 참여하게 대립되고 있는 갈등 사안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갈등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또한 주민들이 직접 공약 이행 점검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아산시에서 운영한 시민배심원단은 공약의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것으로 정파적 개인적 이해에서 자유로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공성에 기반을 둔 숙의(Deliberation)와 의사결정을 진행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단체장의 선거공약은 지역 주민과의 직접적인 공적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깨뜨려도 괜찮은 약속처럼 취급되거나 소수 전문가 의견에 의존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의 직접적인 평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산시 시민배심원 운영은 외국의 사례를 무분별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 맞게 보완하여 접목하였다. ARS와 전화면접을 통한 위원단 모집과 교육 및 토론 방식³⁾에 대한 단초를 찾았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부여할 수

3) 시민배심원 교육은 2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1차 교육은 아산시민으로서 자긍심 제고와 시민배심원 활동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차 교육은 시민배심원단의 역할과 평가 방법 학습과 균형 잡힌 정보 제공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시민배심원의 토론 방식은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주민배심원 운영 기법 활용은 다른 지자체의 실험에도 매우 유용한 경험적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분임토론 과정에 있어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숙련된 촉진자(Facilitator)역할이 더해져서 효과적인 면대면 상호과정(Face-to face interaction)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성숙한 민주주의의 소중한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강조하였다. 특히 모든 시민배심원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시간 동등한 발언 기회를 부여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도록 하였다.



제3장
시민배심원 운영 절차

제3장 시민배심원 운영 절차

1. 시민배심원 운영 기조 및 흐름

■ 숙의적 의사결정을 위한 시민배심원 5대 주요사업

- 민주성·공정성에 기반을 둔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협력적 네트워크 다양화를 모색하며 아래로부터의 공감과 신뢰 행정 기운을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시민배심원단 선발	기초교육 심화교육	분임 활동	토의, 결정	결과 수용 주민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협약 - ARS 모집 - 전화 면접 - 시민배심원단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이해 - 매니페스토 운동 및 시민배심원에 대한 이해 - 공약에 대한 학습과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임별 평가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임 토의 - 전체 회의 - 권고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안 공시 - 결과수용 - 결과공시

■ 시민배심원 진행과정의 흐름



- 공약설명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잡힌 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토의 및 합의 과정에서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촉진자가 중심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 시민배심원 운영 일정 및 주요내용

구 분	일시 및 장소	주 요 내 용
1차 예비 회의	11/15(금) 14:00~17:35 (제일호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장 수여 ○ 매니페스토 운동과 시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시민배심원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마음열기(아이스 브레이킹) - 시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2차 예비 회의	11/29(금) 14:00~17:35 (아산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시민배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임별로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시민배심원 질의에 대해 답변 - 설명 종료 후 시민배심원 자유 토의
분임 활동	11/30~12/12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부서 담당자와의 심층면담 ○ 현장조사
본회의	12/13(금) 13:30~17:50 (아산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임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찬반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 분임별 공약 이행 평가 : 공약의 장점, 실천계획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분임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 전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시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참석자 과반 찬성 시 승인) - 공약 이행 평가 : 전체 시민배심원 합의로 분임권고안 최종 승인

2. 시민배심원 운영 지원 조직

■ 시민배심원 분임별 촉진자

- 분임별 촉진자는 시민배심원 회의 기획 및 운영을 위해 구성된 활동가 조직이다. 촉진자는 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지역 활동에 대한 현장실무 경험이 있는 활동가 및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 촉진자는 활동 과정에서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회의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회의참여를 유도하고 원활한 토의를 위한 진행자 및 공약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한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다.
- 촉진자 구성
 - 류일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
 - 김문자 열린사회시민연합 동대문구시민회 운영위원
 - 서소영 희망연대 운영위원
 - 이밝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조직팀장
 - 조운서 열린사회시민연합 동대문구시민회 운영위원
- 촉진자 준비 사항
 - 주민배심원 운영 관련사항 점검 및 토의
 - 회의 안건지 작성, 심의 안건 검토

■ 시민배심원 지원 스텝

- 배심원단 회의에 대한 운영지원 업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와 아산시청 미래전략과(전략사업팀)에서 담당하였다.
- 지원스텝 활동 사항
 - 시민배심원 전화 모집
 - 시민배심원 회의 준비, 진행

3. 시민배심원 모집 절차

■ 1차 모집 (ARS를 통한 무작위 추출)

- 아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 유선전화 ARS를 통해 125명의 1차 시민배심원 모집
- 모집 및 선정방법
 - ARS를 통해 성별, 나이, 지역을 고려 무작위 추출, 참여 희망자 조사

구분	성별	나이	지역	1차 선발
고려 사항	성별 동수	10,20,30,40,50, 60대 이상	지역별 인구 비례로 선발	참여의향을 밝힌 시민배심원 선발

- ARS 모집을 위한 안내 내용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케이에스오아이입니다. 아산시청에서는 매니페스토본부와 함께 아산시장 공약 이행 점검을 위한 시민배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배심원으로 지원하시면 11월 15일 금요일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아산시장의 공약에 대해 심의하게 됩니다. 참여하신 분에게는 소정의 수고비를 드립니다. 시민배심원에 참여하실 의사가 없으시면 전화를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배심원은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등록을 위해 선생님의 연령과 성별을 여쭙어보겠습니다.

[연령] 문1. 먼저 선생님의 연령대가 만19세 미만이면 ①번, 만19세 이상 20대면 ②번, 30대면 ③번, 40대면 ④번, 50대면 ⑤번, 60세 이상이면 ⑥번을 눌러주십시오.

[성별] 문2. 선생님의 성별이 남성이라면 ①번, 여성이라면 ②번을 눌러주십시오.

[휴대전화번호] 문3. 감사합니다. 자세한 일정 및 행사 안내를 위해 선생님께 직접 전화를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휴대전화 번호와 우물정자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료 멘트] **[조사제외대상] **[할당완료]	* 다시 한 번 질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심원 최종 확정 여부는 직접 전화 드리고 안내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죄송합니다. 표본할당이 완료되어 귀하께서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

■ 2차 모집 (전화 면접)

- ARS를 통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주민 125명을 대상으로 11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9일 간 전화 면접을 거쳐 최종 위원단 40명 선발
- 선발 기준은 인구비례에 의해 이해도와 참여도가 높은 주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음
 - 단체장의 직계 가족과 정당의 주요 당직자, (현)공무원,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는 제외하였음.
- 전화면접 주요 내용

안녕하세요? 며칠 전 ARS 전화를 통해 아산시장 공약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시민배심원 회의 참여를 희망하셨는데요. 주민배심원 회의에 참석이 가능하신지 다시 한 번 여쭙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심의내용 : 아산시장 공약이행현황 조정심의, 개선방안 의견 수렴)
시민배심원 회의는 총 3회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첫 회의인 1차 회의는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2차 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3차 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 한 회의 당 소요시간은 약 4시간

※ 1차 또는 2차 회의에 불참한 경우 3차 회의 참여 불가
그리고 소정의 회의비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석가능하신지요?

[확인 질문 1] 아산시장과 친인척관계이시거나 공공기관의 공무원, 또는 정당 주요 당직자로 근무하고 계시는지요?

(前 선출직 공직자 출신의 경우도 제외함. 전 지방의원, 전 국회의원, 전 지자체 단체장, 전 대통령 등)

→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시민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을 공손하게 알림.

→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경우) 네, 선생님은 민선7기 아산시장 공약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시민배심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확인 질문 2]

- 이름

- 연령대

- 살고계신 지역 (아산시 ○○읍면동)

감사합니다.

앞으로 회의 전에 몇 번의 문자로 일정을 재차 안내하겠습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를 못하실 경우에는 현재 핸드폰에 찍힌 번호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배심원단 (40명 선발)

○ 연령별 선발된 시민배심원단 수

연령	선발인원
20대	1
30대	6
40대	10
50대	11
60대 이상	12
계	40

○ 성별 선발된 시민배심원단 수

성별	선발인원
남	16
여	24
계	40

○ 지역별 선발된 시민배심원단 수

지역	선발인원	지역	선발인원
도고면	1	온양1동	3
둔포면	2	온양2동	3
배방읍	3	온양3동	7
송악면	2	온양4동	3
신창면	2	온양5동	4
염치읍	3	온양6동	2
영인면	1	음봉면	4
계		계	40

4. 시민배심원 예비회의 및 본회의

■ 1차 예비회의 및 시민배심원단 최종 확정

- 일시 및 장소 : 11.15(금) 14:30~17:35 / 제일호텔
- 시민배심원단 참석자 수 : 32명
- 주요내용 : 시민배심원단 교육 및 분임 구성
 - 위촉장 수여
 - 매니페스토 운동과 시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주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시민배심원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 시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분 임 명				
부영이 (1분임)	복지천구 (2분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대한민국 관광의 보고 아산! (3분임)	은행나무 길 달 밝은 밤 (4분임)	시샘 (5분임)

■ 2차 예비회의

- 일시 및 장소 : 11.29(금) 14:00~17:35 / 아산시청
- 시민배심원단 참석자 수 : 31명
- 내용 : 공약 안전 설명회 (주관부서 ⇄ 시민배심원)
 -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위원단 질의에 대해 답변
 - 설명 종료 후 시민배심원단 자유 토의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20 (20')	▶ 개회 및 공약 총괄 설명	아산시
14:20~14:30 (10')	▶ 분임별 시간 (2차·3차 회의 진행 안내 등)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14:30~17:20 (170')	▶ 분임별 공약 설명 및 질의응답 (주관부서 ⇒ 시민배심원) - 분임별로 공약사업담당자가 직접 설명, 시민배심원단 질의에 대한 답변 - 안건 : 분임별 4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공약사업 추진부서
	안건 1 : 14:30 ~ 15:10(40')	
	안건 2 : 15:10 ~ 15:50(40')	
	15:50~16:00(10') 휴식	
	안건 3 : 16:00 ~ 16:40(40')	
	안건 4 : 16:40 ~ 17:20(40')	
17:20~17:30 (10')	▶ 분임별 자유토의 (분임활동 계획 세우기, 소감 나누기)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17:30~17:35 (5')	▶ 다음 일정 안내 및 폐회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분임별 심의 안건 내용

○ 부영이 (1분임)

- 촉진자 : 류일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

구분	공 약 명	비 고
조정 안건	1-13. 곡교리 수문 빛 배수펌프장 설치 ※ 공약명 변경	건설과
평가 안건	1-5. 하자없는 '도로 및 인도공사 책임제' 시행	도로과
평가 안건	1-9. 건축물에 대한 소방·내진 설치기준 적용 및 조사강화	건축과
평가 안건	1-12. 안전사각지대 CCTV 확대	정보통신과

○ 복지천국 (2분임)

- 촉진자 : 김문자 열린사회시민연합 동대문구시민회 운영위원

구분	공 약 명	비 고
조정 안건	2-5. 배방월천초·모종중·탕정일반고·장영실과화기술고 신설추진 ※ 공약명 변경, 일부폐기	교육 청소년과
조정 안건	2-10. 충남도와 연계한 70세 어르신 버스비 무료 추진 ※ 공약명 변경	대중교통과
평가 안건	2-15.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조속추진	경로 장애인과
평가 안건	2-25. 행복아산시민아카데미 시민 경연문화축제 확대 추진	평생학습관

○ 눈으로보고 마음으로 보고 대한민국 관광의 보고 아산! (3분임)

- 추진자 : 서소영 희망연대 운영위원

구분	공 약 명	비 고
조정 안건	3-11. 쌀조개섬 수상테마파크 조성 ※ 공약명 변경	건설과
평가 안건	3-2. 곡교천변을 활용한 '복합 체육여가공간'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체육진흥과
평가 안건	3-3. 1인 1생활체육 추진	체육진흥과
평가 안건	3-5. 아산둘레길(산성길, 호수길, 천변길, 뒷동산길 등) 단계별 조성	산림과

○ 은행나무 길 달 밝은 밤 (4분임)

- 추진자 : 이밝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조직팀장

구분	공 약 명	비 고
조정 안건	4-14(2). 친환경농산물 광역물류센터 유치 ※ 공약명 변경	유통지원과
평가 안건	4-8.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임기 내 15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공원녹지과
평가 안건	4-15. 친환경 급식 확대 학교 외	유통지원과
평가 안건	4-24.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건설과

○ 시샘 (5분임)

- 촉진자 : 조운서 열린사회시민연합 동대문구시민회 운영위원

구분	공 약 명	비 고
평가 안건	5-2. 도시재생의 차질없는 추진(장미마을, 배방모산역)	도시재상과
평가 안건	5-10. 풍기역 신설 추진	교통행정과
평가 안건	5-21. 장존·외암마을 간 4차로 확포장 공사	도로과
평가 안건	5-26. 온양은청시장 공영주차장 확대조성	기업경제과

■ 3차 본회의

○ 일시 및 장소 : 12.13(금) 14:00~17:50 / 아산시청

○ 시민배심원단 참석자 수 : 30명

○ 내용 : 분임회의 및 전체회의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찬반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 분임별 공약 이행 평가 : 공약의 장점, 실천계획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분임 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시민배심원단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 찬성 시 승인)
- 공약 이행 평가 : 전체 시민배심원단 합의로 분임권고안 최종 승인

- 분임 토의는 분임별 심의 안건을 대상으로 120분간 진행함. 조정공약에 대하여 조정 적정여부를 토의하고, 분임별 2~4개 중점 공약에 대하여 실천계획을 평가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함.
- 분임 토의는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배심원 의견을 빠짐없이 기록함.

<공약 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찬반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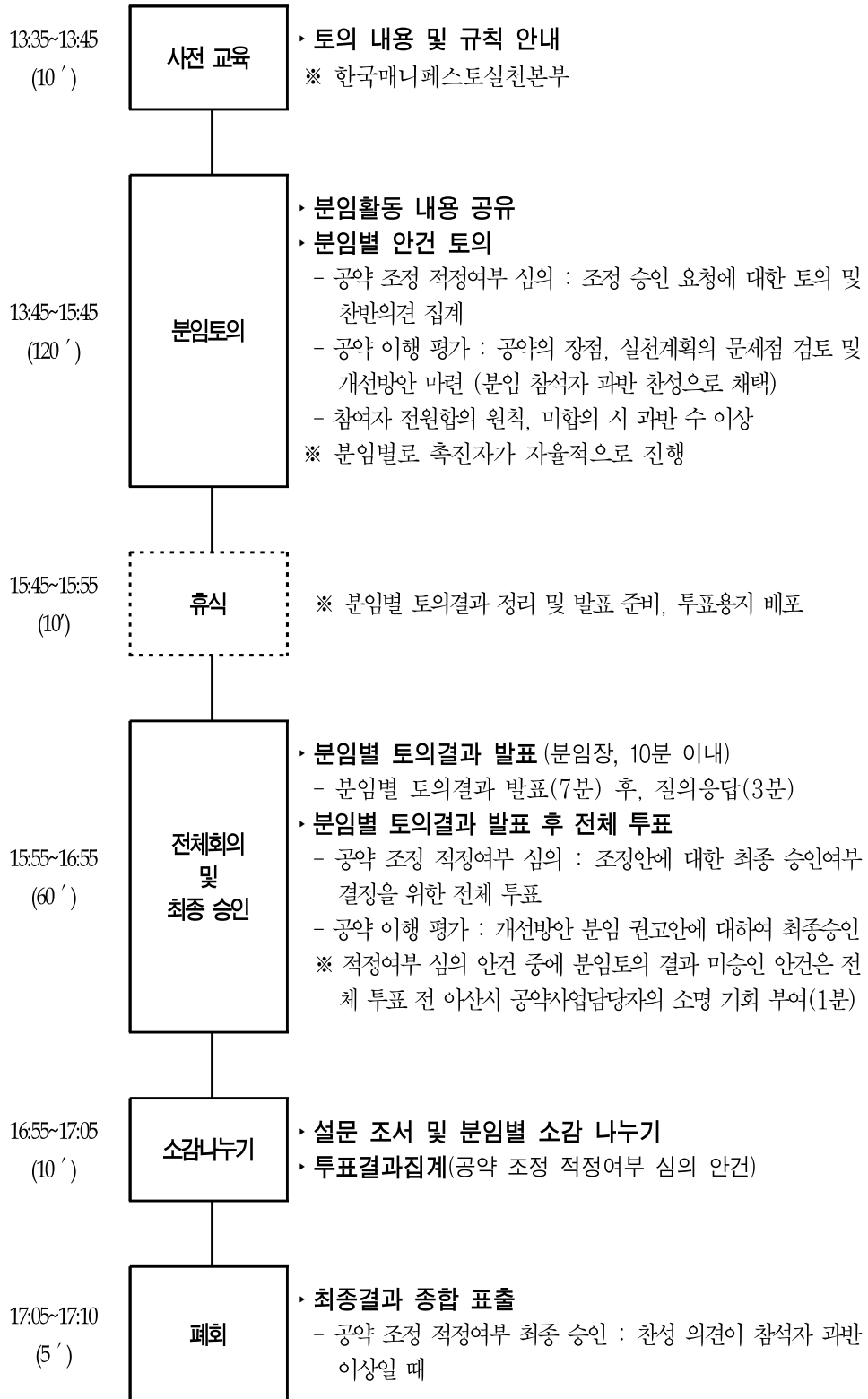
1. 안건 및 2차 회의 질의응답 내용 설명
2. 순차적으로 배심원단의 1차 찬반입장 제시 (1차 조사)
3. 순차적으로 찬반의견에 대한 사유 제시
4. 찬반의견에 대한 토의
5. 2차 찬반 투표 진행 (2차 조사)
5. 토의결과 정리

<중점 공약사업 이행 평가 및 아이디어·개선방안 마련>

1. 안건 및 2차 회의 질의응답 내용 설명
2. 순차적으로 각각의 시민배심원단 검토의견 제시
3. 각각의 위원들이 제시한 아이디어·개선방안에 대한 토의
4. 권고안 정리 및 개별 권고안이 획득한 표의 수 기재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의 경우 배심원들의 찬반토의를 거쳐 분임별 투표를 진행하고 전체회의에서 전체 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중점 공약사업 이행 평가는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 각각에 대해 심층 토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합의된 의견(전원 합의가 안될 경우 과반수의 찬성을 획득한 의견)을 권고안으로 작성한 후 전체회의에서 시민배심원 전원에게 재청과 삼청을 물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함.
- 전체회의에서 분임별 회의 결과에 대한 시민배심원단의 개별 질문이 있을 경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개별 위원들이 개진한 의견들도 권고안의 기타의견으로 첨부함.

○ 본회의 진행 방식은 아래 표와 같음.





제4장
시민배심원 운영 결과

제4장 시민배심원 운영 결과

1. 시민배심원 최종 심의 결과 및 권고안 내용

가. 공약 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최종 투표 결과

- 총 5개 공약 조정 승인 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5개 안건이 배심원단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음.

분임명	연번	토 의 안 건	투표결과	
			승인	미승인
부영이 (1분임)	1	곡교리 수문 및 배수펌프장 설치 ※ 공약명 변경	27	2
			기관:	1
복지천국 (2분임)	2	배방월천초.모종중 탕정일반고.장영실과학기술고 신설추진 ※ 공약명 변경, 일부폐기	24	5
			기관	1
	3	충남도과 연계한 70세 어르신 버스비 무료추진 ※ 공약명 변경	22	6
기관:	2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대한민국 관광의 보고 아산 (3분임)	4	쌀조개섬 수상테마파크 조성 ※ 공약명 변경	25	3
			기관:	2
은행나무 길 달 밝은 밤 (4분임)	5	친환경 농산물광역물류센터 유치 ※ 공약명 변경	25	4
			기관:	1

나. 주요 공약 실천계획 평가

■ 공약이행 평가 안건 15개에 대하여 분임별 평가토의를 거쳐서 총 50개의 권고안이 마련되었고, 이 권고안은 전체회의에서 전체 배심원단 합의로 최종 승인되었음.

■ 부영이 (1분임) : 11개 권고안

- 하자없는 '도로 및 인도공사 책임제 시행'
 - 시민이 참여하여 도로의 하자 및 기타문제점 등을 조사하고 발굴하는 제도를 적극 운영해야 할 것임.
 - 가스·수도 배관 등 다양한 매설물들의 통합 관리를 위한 지하시설물을 개량할 필요가 있음.
 - 전신 지중화를 통해 전기·통신 등을 일괄 관리하고 미관도 개선했으면 좋겠음.
 - 전동휠체어와 자전거 이용이 안전하고 용이하도록 도로·인도가 개선 되었으면 좋겠음.
- 건축물 소방·내진 설치기준 적용 및 조사강화
 - 법규 위반 단속 이후 사후조치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빈 집이나 빈 상가의 경우 점검하여 전기·가스 등 화재 발생 요인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조사 인력을 더 보강하여 점검을 더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건축물 안전 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음.
- 안전사각지대 CCTV 확대
 - CCTV 확대도 좋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홍보·계도 등으로 시민들에게 주지시켜야 하겠음.
 - 사각지대·취약지대 CCTV 보강 필요함.

- CCTV를 동일한 검은색으로 하기보다 용도에 따라 보기 좋은 색상이나 디자인 등을 적용하면 좋겠음.

■ 복지천국 (2분임) : 5개 권고안

-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조속 추진
 - 병원 내의 편의시설(커피숍이나 매점 등)을 장애인이나 취약계층들에게 불하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음.
- 행복아산 시민아카데미 시민강연 문화축제 확대추진
 - 강사인력을 다양한 직능별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강사발굴을 위해 읍면동사무소와 각 마을 이장들을 통해 진행하면 좋겠음.
 - 강연내용이 성공사례 뿐만 아니라 실패사례도 강연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자발적 신청과 함께 강사 추천을 받아 강사 인력을 증원하면 좋겠음.
 - 강연장소를 마을회관 등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하고 단순히 강연만 진행하기보다 인근 주민들의 재량을 펼칠 수 있는 문화공연의 장도 함께 열어 흥겨운 마당으로 만들면 좋겠음.

■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대한민국 관광의 보고 아산! (3분임) : 10개 권고안

- 곡교천변을 활용한 복합체육여가공간 조성 마스터 플랜 수립
 - 은행나무 길은 정비가 잘 되어 있지만 반대편은 주변 경관 정리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은행나무 반대편은 진출입로가 위험해서 개선해야 할 것임.
 - 시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잔디를 심고 산책할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정주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중요할 것임.
 - 집중호우나 홍수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겠음.
- 1인 1생활체육 추진

-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지역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체육 시설 프로그램 개선을 하면 좋겠음.
- 아산둘레길(산성길, 호수길, 천변길, 뒷동산길 등) 단계별 조성
 - 둘레길의 특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신정호처럼 걷기 대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이 다시 찾게 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둘레길 구간 완주 스탬프를 건의하며 아산사랑 상품권 등의 소소한 재미를 주어 참여를 권장하고 둘레길을 더 찾게 할 필요가 있음.
 - 타도시의 모범 사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시민의 둘레길 걷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함.

■ 은행나무 길 달 밝은 밤 (4분임) : 11개 권고안

- 친환경급식 확대 (학교 외)
 - 시지원금으로 식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아산시의 판매처와 아산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우선 구입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조리사가 있기 때문에 조리를 해서 지원하기보다는 원물로 지원하는 것이 좋으며 시지원금도 식비에 책정된 만큼 원물로 제공하면 좋겠음.
 - 공급 지원체계가 미정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수요파악과 지원형태를 명확하게 정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아산시의 친환경농가가 7%로 대량 생산·소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체 공급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임.
- 임기 내 15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 나무의 양적 증대에 중요하지만 관리미흡으로 인한 미관상의 문제나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예산의 증액을 통해 질적인 관리감독이 꼭 해야 할 것임.

-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떨어지는 낙엽수보다는 도시미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교목같은 침엽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침엽수의 단점인 겨울철 그늘로 인한 빙판위험성은 도로관리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수종을 다양화하면서도 환경과 미관의 안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은행나무가 시목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심기보다는 특정지역을 은행나무길 조성을 통해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생활 거주지역은 다른 나무로 교체하여 진행하면 좋겠음.
-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 주변 지역 주민들이 사유지처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할 것임.
 - 자연보존을 최우선 목표로 진행하며 하천변 체육시설은 지양하고 시민편의를 위한 산책로와 휴식 공간 조성 정도만 진행하도록 할 것임.
 - 정비가 제대로 하여 시민들이 아름다운 하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시샘 (5분임) : 13개 권고안

- 도시재생의 차질없는 추진(장미마을, 배방모산역)
- 핵심적인 목적보다는 다양한 사업의 확장시도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낮고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명확한 사업목적과 사업진행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과 소규모극장을 만들어 주민들과 다른 지자체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집중이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여성성평등의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음. 온양행궁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역사재현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원주민인 유흥업소들도 생계를 위한 일이고 개인사유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고 진행하기에는 모순이 있으며 이를 위해 계도나 계몽을 통해 더 이탈되지 않는 장소로 지도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

도록 하여 제도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해야 할 것임.

- 기존의 재생 현황부스 사용빈도가 낮고 경제활동활성화, 청년창업, 체험공간 등 진행 중인 사업이 많지만 실제로 정보를 알고 이용하는 시민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기존의 사용하지 않고 버려져 있는 공간을 재사용하는 방안을 간구해야 할 것임.
- 개발과 재생사업의 내용이 생소하기 때문에 재생사업의 '재생'이라는 단어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인식개선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풍기역 신설 추진

- 수요에 비해 교통 접근의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전철을 신설하면 이순신빙상장, 운동장, 체육관들의 이용이 늘어나 미래의 접근성이 원활해질 것이며 적자가 예상되지 않는 사업의 지속성과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전철의 신설이 필요할 것임.
- 신설할 역의 접근성을 높기 위해 마을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신설도 필요할 것임.

○ 장존~ 외암마을 간 4차로 확포장 공사

- 천안 예산 아산에서 외암마을로 가는 부분의 병목현상이 발생하며 아산시로 들어올 때 표지판이 없어 초행길의 경우 불법유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입간판을 설치해야 할 것임.

○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장 확대조성

- 공중화장실 시민로 시청으로 가는 길 옆으로 진출입시 병목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진출입의 이원화가 필요할 것임.
-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과 함께 상인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자체 모니터링단 결성, 우수업체 선정 시 아산신문을 통한 홍보 및 상품권 증정, 우수업체 표시 등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할 것임.

- 시장 살리기 대책으로 대형마트를 입점하여 야채농산물은 상인에게, 공산품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여 구매부터 계산까지의 일괄쇼핑이 가능한 통일된 시스템이 필요할 것임.
- 온양온천시장만의 특징으로 로컬 푸드, 키즈카페 무료운영, 다른 마트와의 차별화 등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할 것임.
- 철거부지의 주차타워에 공공시설 입주를 통해 시장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분임별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2차회의(예비회의)에서 이루어진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에 기초하여, 3차회의(본회의) 분임회의에서 평가토의 및 권고안 마련이 이루어졌다.

2차회의는 시민배심원단 31명, 촉진자 5명, 공약담당부서 공무원 등을 포함 70여명이 참석했다. 2차회의에서는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보고가 이루어졌고, 분임별 심의 안건 담당자가 배석한 가운데 안건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으며, 시민배심원의 질의에 담당공무원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2차회의 후, 시민배심원단은 담당부서 면담과 현장 방문 및 분임원들과 토론 등을 거쳐 3차 회의를 준비하였다.

3차회의(본회의)는 15개 안건에 대해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와 공약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을 내용으로 분임 토의 및 전체회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는 분임토의에서 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찬반토의를 실시했고 전체회의에서 전체 배심원 찬반투표로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였다. 중점공약 이행 평가는 분임토의에서 배심원들이 순차적으로 제시한 평가의견에 대해서 토의한 후,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권고안을 작성하였고(합의가 어려울 경우 과반 지지를 얻은 의견),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한 의견들도 기타의견으로 첨부하여 전체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전체 시민배심원 합의로 권고안을 최종 승인하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3차회의(본회의) 진행에 앞서 토의에 임하는 시민배심원의 자세와 역할, 심의 과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권고안에 대한 후속작업 등을 전달하였다.

가. 부영이 (1분임)

공약 조정 심의	1-13	곡교리 수문 및 배수펌프장 설치
-------------	------	-------------------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당초 공약개요

- 사업내용 : 배수장을 이용한 기계배제
 - 배수장 : 배수펌프장 신설 1개소
 - 간선배수로 : 개거 1.85km (방현천 합류점~음봉천 합류점)
 - 배수로 정비 : 12조 3.9km
- 사업비 : 약 100억 원 (국비)
- 공약목표 : 곡교리 수문 및 배수펌프장 설치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곡교리 수문 및 배수펌프장 설치
(변경후) 조정 내용 등	곡교천일원 농경지 침수예방사업 추진

○ 조정사유

- 사업대상지는 경지정리된 약 140ha의 한국농어촌공사 몽리구역임
 - 평시 중앙배수로(폭12m, 깊이 3m, 연장 1.85km)를 통하여 농경지에 용수 공급
 - 우기시 곡교천으로 우수를 배출하고 있으며, 집중호우시 곡교천의 수위가 상승하여 우수 배출이 안될 경우에 농경지 침수가 발생
- 국비 지원사업 신청 기준의 침수 피해 기준은 24시간이나 대상 농경지는 침수 지속시간이 6시간에 그쳐, 배수 개선사업을 위한 지구 선정

이 사실상 어려움

- 시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효과 대비 시비 투입 과다의 문제 발생, 현실적인 예산으로 추진 가능한 대안 사업으로 변경

■ 질의응답

- 배심원 : 원래 배수펌프장은 어디에 조성하려고 했습니까?
- 담당자 : 방현천과 음봉천 합류지점 곡교리에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 배심원 :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합니까?
- 담당자 : 도에서 관리합니다.
- 배심원 : 도비로 사업 예정이었습니까?
- 담당자 : 국비로 진행하려고 했고 삼교방조제 수문 확대는 817억원 규모입니다.
- 배심원 : 방현리는 침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담당자 : 삼교방조제 수문 확대로 수위가 내려가서 침수 문제가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 배심원 : 현재 배수량과 배수속도는 얼마나 됩니까? 강수량은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 담당자 : 삼교방조제 기본보고서가 있습니다. 100년 빈도 홍수량으로 1초당 5,460톤에서 7,145톤으로 초당 1,685톤 증가하고 수량 131% 증가하며 홍수위가 1.6미터 저감됩니다. 수위 하락과 지류 홍수방지 효과는 확인하겠습니다.
- 배심원 : 준설이 시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담당자 : 퇴적토와 장애물이 있으며 퇴적물을 제거해 배수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배심원 : 음봉천과 방현천 외 지역은 괜찮은 것입니까?

- 담당자 : 침수라는 것이 며 나락 위로 24시간 잠기면 침수라고 합니다. 음봉천과 방현천 지역은 현 상태에서도 6시간이면 빠져나갑니다. 그 주변 지역 쌍죽천과 염성천이 있는 염성리가 있는데 여기는 염성배수펌프장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 배심원 : 아산만이 서해로 나가는 것인데 서해 수위가 만조시에 폭우가 쏟아져도 조정안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까?
- 담당자 : 현재 5개 수문으로도 6시간 물이 찻다가 빠집니다. 100년 빈도 홍수를 기준으로 만조가 되더라도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배심원 : 펌프장보다 곡교천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 담당자 :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곡교천 환경생태사업으로 정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배심원 : 아산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담당자 : 음봉천과 방현천 배수로에 대한 배수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 배심원 : 삼성에서 공장을 증설하면 아산에 물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 담당자 : 그래도 충분한 수준입니다.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면 개정
 - 주요내용 : 원인자부담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징수 방안 등
- 공약달성 최종목표 : 도로 및 인도공사 책임시행

○ 그동안 추진현황

- 2018. 7. 25. : 초안 작성 완료
- 2018. 9. 20. : 부서간 의견수렴 및 시장님 방침결정
- 2018. 10. 2. : 관련부서 협의, 승인 및 입법예고
- 2018. 11. 14. : 원안확정 및 의회제출
- 2018. 12. 15. : 조례공포

○ 향후 추진계획

- 조례 제정의 기반 마련으로 하자없는 신속하고 분명한 공사 시행

■ 질의응답

- 배심원 : 안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기·가스 등 공사 시에 도로를 굴착하는데 굴착 후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굴착 사업 시행자에게 원상복구를 의무화하는 하자없는 '도로 및 인도공사 책임제 시행'을 조례로 제정했고 분기별로 18명의 도로관리위원이 도로굴착심의를 합니다. 전문인력 보충 권고안 있었으며, 도로과 정원 1명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 전담인력 확보는 미진한 상태입니다. 2진 아웃제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사업이면 계약 제재가 가능하겠지만 통신·가스 등은 시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배심원 : 시민들이 참여하여 감시하고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의 통·반장 등이 그런 역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담당자 : 주민참여감독관을 운영하다보면 여러 통·반이 걸치는 구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은 있지만 말씀하신 사항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배심원 : 시내권은 하자보수가 빠른 편이지만 외곽은 그렇지 않습니다.
- 담당자 : 아무래도 통행이 많은 쪽을 우선으로 하자보수를 하다 보니 외곽은 소외되는 편입니다.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배심원 : 눈·비 올 때 침하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시공했던 사업자들이 2년 동안 보증한다 해도 하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야간에 도로굴착공사를 하던데, 하자보수공사는 야간에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담당자 : 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야간공사를 하지만 도시가스공사 등에서 발주한 경우 저희가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 배심원 : 당연한 일인데 이런 것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 담당자 : 당연하지만 제도적 장치로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배심원 :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 담당자 : 차도는 도로관리자 입장에서 굴착이 안 이루어지면 좋은데 생활에 필요한 지하매설물을 묻는 시기가 각자 사정이 달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매 분기마다 도로굴착심의를 해서 연간사업계획을 받아서 조정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보도를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 담당자 : 시내권은 도로구역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보행자중심으로 제도가 바뀔 것이므로 노력하겠습니다.
- 배심원 : 멀쩡한 보도블럭을 엮고 새로 까는 것이 아니라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보도 정비에 예산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 담당자 :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맞습니다.
- 배심원 : 행정을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는 등)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 담당자 :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 이행에서 주민동의를 받는 것은 앞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배심원 : 조례 제정 이후 효과는 무엇입니까?
- 담당자 : 분기별로 도로관리심의를 병행하기 때문에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도로법에 정한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굴착 파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징수가 있습니다.

공약
이행 평가

1-9 건축물에 대한 소방·내진 설치기준 적용 및 조사강화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7. 10. ~2019. 12. 31.
 - 1단계 조사 ' 18. 7. ~ ' 18. 12. / 2단계 조사 ' 19. 1. ~ ' 19. 12.
- 사업량 : 건축물 3,627개소 (2018년 876개소, 2019년 2,751개소)
- 조사대상 : 화재취약건축물(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
- 조사내용 : 소방, 건축, 전기, 가스시설 각 분야 (조사운영지침 의거)
- 조사방법 : 5개반 편성 조사 (1반 구성 : 소방 1, 건축 1, 보조 1)
 - 건축분야 조사 인력 : 5명(건축직 직원 1명, 경력직 채용 4명)
 - ※ 파견 가능 인력 부족으로 건축직 소속 부서 별 1명 순환 근무 중
- 공약달성 최종목표 : 사업량 모두 조사하여 시설개선 및 화재 대응력 강화

○ 그동안 추진현황

- 2018. 7. 16. : 화재안전특별조사 1단계 착수
- 2018. 12. 28. : 화재안전특별조사 1단계 완료
- 2019. 1. 10. :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착수
- 2019. 10. 31. :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019. 10. 31. :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통보(410건)
 - 위반건축물 현장 확인 171건(진도율 41.7%)
- 2019. 11~12월 : 통보건 중 45건 현장 확인 예정
- 2020년 12월까지 특별조사건 현장 확인 및 시정명령 완료 예정

■ 질의응답

- 배심원 : 제출한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화재나 지진으로 인한 우려가 많아 소방서와 협조하여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진행하여 건축물 3,627개소를 합동 점검하는 것입니다. 소방설비는 소방서에서하고 건축물 이상의 경우는 시에서 조사해서 조치합니다. 현재 전수점검 마쳤고 소방서에서 통보 온 410개소에 대해 처리를 진행 중입니다. 업무가 많다보니 인력증원을 요청했는데 늘리기 어려워 기간제 근로자 화재안전조사원 2명을 채용했습니다. 매뉴얼 정비는 국가 차원에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비하였습니다. 위락시설 경보기 미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비상구나 방화문 법규 위반 업무는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건축물관리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건축물까지 제도의 틀 안에서 유지 관리하게 됩니다.
- 배심원 : 3,627개소는 무엇입니까?
- 담당자 : 건축물 3,627개소입니다. 아산시에 건축물이 많이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인 업소가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배심원 : 아파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담당자 : 내진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건물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었고 그동안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소형건물에도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건축물 관련법을 배운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방안전 교육 기회 늘리거나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담당자 :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시민들께서 체감하기에는 미진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건의하겠습니다.
- 배심원 : 관련 법률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10건이 위반

사례라고 했는데 위반사례가 이렇게 많습니까?

- 담당자 : 저희가 적발한 사례가 보고한 바와 같은 규모입니다. 방화문을 없애는 등 불법 구조변경이 사고의 주된 원인입니다. 1차 시정기한을 주고 그 기한에 시정을 하지 않으면 위반건축물로 본다고 고지하고 있으며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 초기에는 저항이 강했지만 현재는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면서 정착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화재취약건물은 누가 판단합니까?
- 담당자 : 소방서에서 판단합니다.
- 배심원 : 노후건물 기준은 무엇입니까?
- 담당자 : 법률상 20년~30년 이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30년 이상 된 소규모 건축물을 노후건축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빈집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 담당자 : 소유자가 관리해야하지만 관리를 하지 않아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민원이 많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거할 수 있지만 사유재산이라 조심스럽습니다. 빈집 철거 시,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건축물이라도 증축을 하려면 현행 건축물 기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7. ~ 2022. 6.
- 사업량 : 방법용 CCTV 확대 196개소 588대, 저화질 CCTV 143대, 노후 CCTV 436대 교체
- 소요 예산 : 29.1억 원 (확대설치 22.9, 교체설치 6.21)
- 총 사업비 : 29.1억 원 (국비 3, 도비 4.7, 시비 21.4)
 - 2019년 : 12.4억 원 (국비 3, 도비 4.7, 시비 4.7)
- 공약달성 최종목표 : CCTV 확대(신규 및 성능개선) 설치 : 1,167대

○ 그동안 추진현황

- 2018. 신규 CCTV 설치 65대 및 성능개선 23대
- 2019. 3. 배방 신도시 지역 저화질 방법 CCTV 성능개선 143대
- 2019. 6. 배방 지역 노후 방법 CCTV 성능개선 61대
- 2019. 10. 우범지역 신규 방법 CCTV 설치 165대 및 성능개선 46대

○ 향후 추진계획

- 2019. 11. 우범지역 신규 방법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18개소, 22대)
- 2019. 12. 농촌지역 마을방법 CCTV 설치 및 성능개선(74개 마을, 240대)

[2020년 ~ 2022. 6]

- 2020. 신규 설치(114대), 성능개선(176대)
- 2021. 신규 설치(138대), 성능개선(150대)
- 2022. 신규 설치(138대)

■ 질의응답

- 배심원 :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중심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골목길이나 외진 곳에도 설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담당자 : 현재까지 2,000대 정도로 어지간한 곳은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외진 곳을 중심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 배심원 : 정보공개대상 성범죄자 있는 지역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담당자 : 스마트폰에 안심귀가어플을 설치하고 실행하면 위험상황에 흔들거나 하면 관제센터에 알려지도록 하는 시스템도 도입하려고합니다.
- 배심원 : 방축동, 남산시민공원 인근 지역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 담당자 : 검토하겠습니다.
- 배심원 : 한 대를 설치하면 성능이 몇 년 지속합니까?
- 담당자 :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 배심원 : 운영관리는 누가 합니까? 학교 같은 곳은 누가합니까?
- 담당자 : 천안아산상생센터 4층에 관제센터가 있으며 관제요원들이 24시간 4조 3교대로 감시하고 있고 경찰관도 나와 있습니다. 학교나 건물의 경우, 자체적으로 관리되며 과속단속은 경찰청, 주정차위반은 시의 교통행정과, 방법은 시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 배심원 : CCTV 보급률이 매우 높아지면 범죄율이 낮아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운영 경비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확대하면 도시가 삭막해지지 않을까 정서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 담당자 : CCTV가 범죄예방 등 안전한 아산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집 앞 설치를 꺼렸는데 요즘에는 자기 집 앞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사생활침해 관련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열람요청 시 경찰과 함께 하며 불필요한 것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열람하게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CCTV 확대보다 다른 근본적인 방안을 통해 범죄율을 줄이고 CCTV가 불필요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담당자 : 경찰과 협력하여 말씀하신 방향으로 수렴하겠습니다.
- 배심원 : CCTV 설치된 곳에 안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 담당자 :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를 주차했을 경우, 시민이 핸드폰번호를 등록하면 위반 시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설치 장소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 담당자 : 민원을 수렴합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시에서 수합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우범지역 여부 확인하고 설치 여부 결정합니다. 매년 100대 이상씩 설치하고 있으며 17개 읍면동에 골고루 우범지역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사회적 신뢰가 너무 떨어져 있고 과도한 위험인식으로 인해 부작용이 우려스럽습니다. 도덕성과 사회적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심원 : 설치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 담당자 : 1개소에 일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카메라 뿐 아니라, 폴, 비상벨, 전송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복지천국 (2분임)

공약 조정 심의	2-5	배방월천초·모종중·탕정일반고· 장영실과학기술고 신설추진
-------------	-----	-----------------------------------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당초 공약개요

- 사업내용 : 학교신설 (초등 1, 중등 1, 고등 1, 특목고 1)
- 시행기관 : 충청남도교육청(아산교육지원청)
- 공약달성 최종목표 → 학교신설을 위한 행정절차 완료

※ 장영실과학기술고신설 공약 취지

첨단산업도시로서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고 신설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변경(일부폐기)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배방월천초·모종중·탕정일반고·장영실과학기술고 신설추진
(변경후) 조정 내용 등	배방월천초·모종중·탕정일반고 신설추진 (장영실과학기술고 삭제)

○ 조정사유

- 국가교육정책 전환으로 목표 달성 한계
- 특목고 폐지, 정부(교육부) 정책방향 발표 (2019. 10. 25.)
 - 특목고 2025까지 폐지, 일반고 강화의 정책 전환
- 학교신설 시행기관인 도교육청의 부정적 입장 표방
 - 충남 학생 인원을 고려할 때 과학고 추가신설 불가 입장 고수

- (천안시도 과학고 신설 제안한 적이 있으나 미승인)
- 대안 검토사항인 충남과학고 이전 가능성 희박
 - 학교 노후로 이전 신축이 거론 되었으나, 주민 반발 등의 문제로 타 지역 이전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

■ 질의응답

- 담당자 : 교육청소년과에서 공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배방월천초, 모종중, 탕정일반고, 장영실과학기술고를 신설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장영실과학기술고를 배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가 교육정책 방향상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간 도교육청 미래과학팀과 협의하였고 올 3월 큰 시정행정위원회에서 왜 불가능지 설명하였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특목고를 2025년까지 폐지하겠다고 10월 25일 공표하였습니다. 수월성 교육(영재학교)인 특목고를 지양하고 일반고를 강화하겠다는 목표이며 국가정책방향이 일반고를 특목고처럼 강화시키자고 전환 중입니다. 도교육청에 과학고 추가신설을 문의했으나 전국 시도에 한 개씩 있는데 공주에 이미 있어서 신설이 어렵다고 회신을 받았습니 다. 충청남도도 승인 요청했으나 교육부에서 미승인 되었습니다. 아산에 는 온양여중고가, 시설이 노후화된 공주에 과학고가 이전을 검토함에 있어서 아산에 이전시 가져오려고 공약을 한 건데 공주 주민들의 반발 이 높아 도교육청에서 포기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장영실과학기술고를 포기하더라도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대전에 있었던 충남과학교육 원을 아산으로 가져왔습니다.
- 배심원 :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나라의 백년대계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겁니까? 아산시장은 장영실과학고를 하겠다고 했을 때 공주 에서 가져오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까? 거기서 주려고도 안할 것입니 다. 이제는 컴퓨터 하나만으로도 먹고 사는 세상입니다. 뭔가 미래 비 전이 있어야 하는데 국가정책에 따라 공약이 바뀌는 것인지 불가능한 것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 담당자 : 학교 신설은 시장에게 권한이 있지 않고 교육감에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염원이 커서 그걸 받아 공약을 한 것입니다. 공주과 학교는 줄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가져오려고 했다는 질문은 당시에 공주가 다시 지어서 가려는 논의가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약간은 선부른 접근이었던 점을 인정합니다.

- 배심원 : 이 정권 말고 대통령이나 교육감이 바뀐다면 또 바뀐다는 것입니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교육정책이 어디에 맞출지 몰라 학부모들은 머리가 아픕니다.
- 담당자 :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보도자료를 보시면 국가정책이 오락가락해서 답답한 학부모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교육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자 청소년재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공약 내용이 교육감 공약이라면 상의도 없이 시장이 내세운 것입니까?
- 담당자 : 학교를 만들 때 교육감 권한이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약을 만든 것입니다.
- 배심원 : 충남교육지원은 이미 다 된 겁니까? 차선택으로 충남과학교육원을 유치했다고 했는데 이걸 단체장 치적이 아니라 이미 7년 전에 했는데 오세현 시장의 업적은 아닙니다.
- 담당자 : 충남과학교육원이 7년 전부터 어디로 이전할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복기왕 전 시장이 계실 때 아산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부지 2,000평, 5개 체험관,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마어마한 시설입니다. 463억원으로 지을 때 시에서 부지제공으로 40억을 했습니다. 충남 아이들이 이용하는 과학시설이라 아산시의 아이들이 더 많고 주말에 일천에서 일천오백명이 와서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복기왕 전 시장이 유치해서 오세현 시장 때 개장을 했지만 좋은 과학인프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장영실고를 포기하지만 필요시 과학인프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기에 시장님의 공약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배심원 : 과학기술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면 되지 않습니까?

- 담당자 : 장영실과학기술고를 마이스터교로 보면 특목고고, 기술고를 특성화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도자료를 보시면 특성화고나 세종하이텍고가 문 닫을 위기이고, 군포 특성화고에 지원학생이 없다고 합니다. 청년취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고졸 채용이 어려워져 특성화고가 점점 인기가 없고, 중간에 일반고로 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1년에 7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실력 없는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들어갔다가 일반고로 전학하는 우회로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 배심원 : 일반고를 바꾸면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입니까?
- 담당자 : 첫 번째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밑줄 그은 일반고를 역량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배심원 : 장영실기술과학고를 포기하고 충남과학교육원 유치에 거리를 떨어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담당자 : 충남과학교육원은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지은 것으로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는 기초과학에 충실한 콘셉트이고 장영실은 유아들이나 초등저학년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라 권역별로 나눠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 배심원 : 배방월천초나 모종중 등 개발 예정지를 보면 개발해서 그쪽 도시형성이 미진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아산시의 도시계획 설립취지와 상관없이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 담당자 :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배방월천지구는 아무것도 안되어 있지만 2019년에 자체투자심의를 도교육청에서 통과했고 중앙에 올라가 중앙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학교설립이 가능합니다. 보통 4천세대가 있어야 하나의 초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내년 4월에 분양이 예정되어 있고, 도청 행복주택 600세대가 승인되면 내년 4월에 입주, 내년 하반기에 있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면 학교 신설이 될 거로 예상합니다. 모종지구는 계획단계라 2024년 도시계획 준공 예정이고 완전한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지선정만 해도 공약이

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가야할 일이며 복수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이라 학부모들이 빨리 배방월천초를 지어 분산해 달라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찍 학교를 신설해주는 대신 주민들이 활용하는 체육시설들을 지어 달라고 요청해서 긍정적으로 교육청에서 검토 중입니다.

- 배심원 : 들어보면 임기 내에 할 수 없는 허황된 사업인거 같습니다.
- 담당자 : 학교시설은 건물까지 다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 부지 확보만 되어도 달성된 것으로 보며, 2년 반 남은 임기가 있으므로 교육부 승인이나 부지확보는 가능한 것입니다.
- 배심원 : 학교 설립이나 학교개교에 대한 것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법적으로 학교가 들어오게 되는데 굳이 공약으로 내세워 학부모들을 현혹시킨 것밖에 안됩니다. 기존의 과밀학급을 해결하기 위해 원도심에 부지를 마련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가 늦어지는 만큼 다른 아이를 위한 정책들에 돈을 쓰는 건 되는 않습니까?
- 담당자 :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우리 부서 일로 떨어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입장에서는 학부모들의 열망을 반영해서 공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업무이지만 시에서도 힘을 보태서 하자는 의미인 겁니다.
- 배심원 : 천안시가 과학고 신설 유치를 제안하려고 했던 시기는?
- 담당자 : 2017년이나 201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과학교육원도 천안이 놓치고 많이 속상해 합니다. 63억짜리 망월경도 있다고 합니다. 태양계 바깥까지 볼 수 있는 대단한 시설입니다. 과밀학급 해소에 도움을 달라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자면 시설을 지을 권한은 없지만 대신 시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남도 지원금액 1위인 것은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배심원 : 모나무르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 담당자 : 네, 개인이 합니다.
- 배심원 : 좋은 프로그램 운영은 인정하지만 시설 노후화는 막을 수 없

습니다. 교육청에 건의하면 아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 담당자 : 네,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없는 부분입니다.
- 배심원 : 특성화고가 정부정책으로 지양하는 추세이고 세종하이텍고도 어렵다지만, 삼성의 반도체가 세계 제일인데 우리도 그런 걸 내세워서 그에 걸맞게 특수화고를 진행하면 좋지 않습니까?
- 담당자 : 말씀하신 것도 공감합니다. 삼성 쪽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충남 외고도 삼성이 거의 투자를 했고 삼성고등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대졸자 위주로 취업을 시키기 어려워서 특성화고도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 배심원 : 충남에 학교가 많은데 인근 대학에 그런 과를 만들어 고급인력을 양성해서 바로 충당시키게 하면 되는 거 않을까요?
- 배심원 : 용화동의 아산초등학교 옆에 농협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었는데 협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입로가 생기고 물류차가 다니면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 담당자 : 아이들에게 위협이 된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지만 아산시에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혹시 협의의견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공약 조정
심의

2-10

충남도와 연계한 70세 어르신 버스비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당초 공약개요

- 사업명 : 충남도와 연계한 70세 이상 노인 버스비 무료추진
- 공약달성 최종목표 →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 공약 취지
 - 충청남도과 연계한 아산시 노인계층의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및 대도시와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통해 고령 친화적 사회기반 구축
 - 활기찬 노년 생활의 활력 증진 및 실질적인 교통체감 복지 실현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충남도와 연계한 70세 어르신 버스비 무료 추진
(변경후) 조정 내용 등	충남도와 연계한 노인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

○ 조정사유

- 충남도지사와의 연계 공약으로 충남도에서 공약 변경 절차 진행 중 (7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연령 상향조정)
- 충남도 지원 없이 우리시 자체시행은 재정부담 증가로 추진 어려움

■ 질의응답

- 배심원 : 대안사업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버스비 지원방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담당자 : 대중교통에 한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장애인의 버스 할인제도가 없는데 정도가 심한 장애는 보호자까지 같이 50% 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주중에만 본인만 30% 할인되고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본인할인은 100% 할인되고 유족은 30% 할인됩니다.

- 배심원 : 할인할 때 별도로 카드를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별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 담당자 : 카드 발급에 별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무료였지만 65세 이상이 분실하시면 5,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재발급해드립니다.
- 배심원 : 연간 10억에서 플러스 5억이 예상된다는데 10억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담당자 : 65세에서 74세가 약 2만명으로 63,000건이며 월 8,700만원, 하루에 한번 결제 후 나머지 무료이고 카드를 보존해 주는 방안입니다. 75세 이상은 약 18,000명으로 98,000건이며 전액 무료입니다.
- 배심원 : 조정사유에 보면 연령이 상한된다고 했는데 기존 70세에서 74세는 못하게 되면 반발을 없습니까?
- 담당자 : 당초는 70세 이상 무료였는데 자체 65세에서 74세까지는 한번 결제 후 나머지 무료라 반발은 없습니다.
- 배심원 : 선장쪽 버스에는 85% 노인들인데 전부 병원가시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요금을 내면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담당자 : 7월부터 7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우리 재정부담이 많지 않았는데 점점 증가추세이며 무료이기 때문에 더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버스 기사들의 월급은 어떻게 합니까?
- 담당자 :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버스 조합에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으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정책사업 중 천안과 평택 무료 환승 사업도 나머지 우리가 보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무료로 주는 경우는 없고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받는 유가보조환급금을 통해 해결하고 벽지노선의 손실을 보상하며 비수요노선 등은 버스가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선에 대해서 16.14명을 기준으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까?
- 담당자 : 국가도 좀 주지만 교통약자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시비로 지원합니다.
- 배심원 : 택시비도 여기서 하는 것입니까?
- 담당자 : 네, 오지는 버스가 한 두 사람 태우러 가는 것 보단 마중콜로 가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 배심원 : 당시 70세 이상으로 했다가 65세에서 74세로 천안을 따라 하는 것인데 예산은 당초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 담당자 : 작년 말부터 시행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예산으로 실행중입니다.
- 배심원 : 75세 이상 수지도 예상입니까?
- 담당자 : 65세 이상은 5월부터, 75세 이상은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예산이 가능한 것입니까?
- 담당자 : 교통복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비를 해놔야 합니다. 도와 연계해서 하다 보니 5대5로 하는데 65세부터는 우리 자체사업이라 돈이 많이 들어서 70세에서 75세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배심원 : 하루 몇 명 때문에 운영을 과도하게 하는 것을 정비할 생각은 없습니까? 단체장의 표 때문입니다.
- 담당자 : 한 두명 타고 다니느니 마중택시로 하는 걸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마중버스를 학생들이 많이 타지만 나머진 한 두 명만 타고 있어 효율성이 있는 마중택시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 배심원 : 장애인도 무료인데 등급이 있습니까?
- 담당자 : 장애인 등급이 없어서 심한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7월부터 실행 예정입니다.
- 배심원 : 충남도와 연계한다면 충남 버스에는 다 노인들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 담당자 : 거의 다 지원이 되니까 다 합니다.
- 배심원 : 충남이면 대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 담당자 : 75세 이상은 도지사 공약이라 전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 공약을 우리처럼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배심원 :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못타는 분들이 95% 이상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용도 어렵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한 대라도 더 늘려주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담당자 : 장애인 할인과 관련하여 휠체어 장애인은 혜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공약
이행 평가

2-15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조속 추진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건립부지 : 충남 아산시 용화동 산39번지 일원 14,900m²
- 건축규모 : 연면적 13,700m²(지하1층, 지상5층), 150병상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4개년)
- 사 업 비 : 270억원(국비 135, 도비 94.5 시비 40.5)
- 공약달성 최종목표 : 충남권역재활병원 개원(2021. 3.)

○ 그동안 추진현황

- 2017. 5. 권역별 재활병원 공모(보건복지부), 참여기관 방향정립
 - 건립 : 지방비 부담액(도비 70%, 시비 30%), 부지(아산시 확보)
 - 운영 :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 2017. 12. 발주기관 확정(영서의료재단) 및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
(충청남도 ↔ 아산시 ↔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 2018. 10. 용화남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2018. 11.~12.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입지내 사유재산 토지 보상 완료
- 2019. 2. 충남권역재활병원 부지에 대한 지질조사
- 2019. 4.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및 경관심의

○ 향후 추진계획

- 2019. 6. ~ 7. 기본설계 완료
- 2019. 8. 설계심의(국립중앙의료원)
- 2019. 9. ~ 10. 건축인허가 및 실시설계

- 2019. 11. ~ 12. 착공예정
- 2020. 1. ~ 2020. 11. 건축공사 및 장비구입
- 2020. 12. ~ 2021. 3. 준공 및 시범운영·개원

■ 질의응답

- 배심원 : 경로장애인을 위주로 한 병원입니까?
- 담당자 : 일반병원이 아닌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노인들의 재활도 같이 합니다.
- 배심원 : 아무리 재활병원이라도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까?
- 담당자 : 경제적 부분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재활병원을 추진한 것을 봐도 공공성을 보고 추진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하려던 병원들은 지방비나 국도비를 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요청했습니다. 충남권역도 처음엔 단국대에서 추진하다가 경제적 부분에서 포기했습니다. 이걸 하면 이용할 분들에게는 엄청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에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진행 중이며 충남도가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배심원 : 공모사업에 의해 선정됐다고 하는데 향후 건립되면 운영비도 지원되는 것입니까?
- 담당자 : 영서재단에서는 가능한 한 책임경영을 하겠다고 하지만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도와 아산시가 5대5로 원년도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 배심원 : 원년도만 운영할 것은 아닌데 수혜자들에게 재활병원이 꼭 필요하지만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아닙니까?
- 담당자 : 원래는 책임 경영을 원년도 보존만 해주면 하겠다고 한 것이고 다른 데는 지원하는 데가 없어서 단독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 배심원 : 설립 후 운영이나 환자유치가 안되거나 환자들에게 재활이 안 된다고 하고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있습니까?

- 담당자 :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거기까지 대비책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충남도와 함께 계속 관리감독을 하려고 합니다.
- 배심원 : 권역별 재활병원이 강제사항입니까?
- 담당자 : 권장사항이고 공모사업으로 진행합니다.
- 배심원 : 적자가 나면 민간병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 담당자 : 충남도와 우리의 지원으로 지워져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 배심원 : 주변 개발계획은 없나?
- 담당자 : 그 주변으로 공동주택 등이 예정되어 있어서 추후에 그런 것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 배심원 : 경로장애인이 우리 시민 중 몇 명이나 됩니까?
- 담당자 : 장애인은 약 15,000명 정도 예상됩니다.
- 배심원 : 민간병원으로 전환을 할 수는 없다면 재정이 어려워지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까 우려됩니다.
- 담당자 : 그렇게까지 되도록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되겠죠.
- 배심원 :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설립이후 관리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 담당자 : 공모 때 사업계획안이 이미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배심원 : 아산시에 재활병원이 몇 개나 있나?
- 담당자 :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민간은 좀 있는 것으로 압니다.
- 배심원 : 민간이 있다면 저가로 해주면 민간병원의 저항이 없겠습니까?
- 담당자 : 민간은 외래로 하지만 여기는 장기입원해서 재활을 하는 것으로 갈 것입니다.
- 배심원 : 영서재단은 노하우가 잘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나 지방비 예산이 나오는 대로 잘 받은 것입니까?
- 담당자 : 그 예산은 충남도로 들어가서 충남도가 영서재단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자칫하면 영서재단에 이용당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겁니다.
- 담당자 : 네, 알겠습니다.
- 배심원 : 아직 병원 설립도 안 되었는데 착공일이 2019년 12월에 된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착공가능일이 언제입니까?
- 담당자 : 사업계획변경안에 승인이 떨어지면 실시설계를 2개월간 합니다. 그 이후 공사입찰을 해서 착공은 4월이나 5월에 가능합니다.
- 배심원 : 향후 운영 중에 시비가 지원되는 금액 보조금은 없습니까?
- 담당자 : 당초 협약을 한 내용은 개원 원년도 적자보존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증축을 하면 기능보강 차원에서 도비나 시비가 투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배심원 : 그렇다면 아산시민들에게 혜택이 다른 지역보다 더 되게 하는 건 없습니까?
- 담당자 : 가까워서 우리관내 주민들이 더 애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 배심원 : 시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하니 우리에게 지원이 더 됩니까?
- 담당자 : 이용료 감면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공약
이행 평가

2-25

행복아산 시민아카데미 시민강연문화축제 확대추진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역량 있는 시민이 강사로 직접 참여하는 「시민 강연의 장」 마련
 - 시민강사 발굴 및 시민 대상 공개 강연 기회 제공
- 운영방법 : 단계별 진행을 통한 사업 추진 및 지속 가능성 확보

시민강사 공개모집	강연 대상자 선정	강연 기회 제공	성장 지원
연중 강사 공개모집을 통한 인적자원 발굴 및 확보 (시민강사풀 구성)	강의능력과 강연내용 종합 검토	행복아산 시민아카데미 시, 본 강연에 앞서 시민강연회 '시민강연 36.5℃' 개최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 공약달성 최종목표 : 행복아산 시민아카데미 시 시민강연 실시

○ 그동안 추진현황

- 2019. 2. :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민강연회 추진계획 수립
- 2019. 3. : 시민강사 공개 모집(연중 상시 접수)
 - 시민강사 10명 신청
- 2019년 시민강연회 「시민강연 36.5℃」 개최 현황

회차	일시	장소	시민강사	강연내용
1	5. 27.(월) 19:00 ~ 19:15	배방읍 행정복합시설	문남희	시선 - 모두가 행복한 자녀 양육
2	6. 25.(화) 19:00 ~ 19:15	평생학습관	김준영	내가 나에게 기회를 주는 삶
3	8. 27.(화) 19:00 ~ 19:15	탕정면 행정복지센터	박정애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4	9. 24.(화) 19:00 ~ 19:15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정효남	신나고 재미나고 건강한 삶 '생태 이야기'

○ 향후계획

- 2019. 11. : 시민강연회 「시민강연 36.5℃」 1회 개최
- 2019. 12. : 시민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 2020. ~ 2022. : 시민강사 지속 모집 및 공개 강연 실시
 - 행복아산 시민아카데미 초청명사 강연에 앞서 「 시민강연 36.5℃」 개최

■ 질의응답

- 배심원 : 강사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제목이 편하게 다가오는데 초보자 같은 경우도 접수 가능합니까? 워크숍 예약을 합니까?
- 담당자 : 먼저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연중 모집하고 있으며 여러 홍보를 했는데 내년 초 대대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시민강사를 파악하고 풀을 만들어 그분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법, 강의 계획서 작성법, 강사법 등의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시민강사에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배심원 : 강연의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 담당자 : 아산시의 홍보수단은 전부 동원합니다. 현수막과 포스터, 전단을 모든 아파트에 배포하고. SNS나 홈페이지, 지역언론, 커뮤니티 카페, 밴드와 관내 주요한 기관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재능기부형식입니까?
- 담당자 : 본인의 역량을 나누고 배우는 취지이며 약소하지만 실비 보상 차원에서 약간의 강의보상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은 이유는 시민아카데미 예산과 홍보비는 별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 배심원 : 현재 시민아카데미 몇 개 강좌와 참여인원은 얼마입니까?
- 담당자 : 올해 6번 진행했고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에 했습니다. 몇 군데 다니면서 좌석 배치된 범위 안에서 선착순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게 했습니다.
- 배심원 : 시민강연 문화축제로 확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 담당자 : 강연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역량을 나누고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명사초청에서 지역 주민들이 하는 강의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 배심원 : 평생학습관을 보면 여러 교실이 있는데 참여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400만원 가지고 운영비 턱도 없습니다. 기존 시설의 수준을 높여 실력 있는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건 안 되는 것입니까?
- 담당자 : 현재 강의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스토리로 만들어 강연무대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심원 : 시민강사 공개모집시 자격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 담당자 : 시민이면 됩니다.
- 배심원 : 상시모집이라고 했는데 접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담당자 : 신청서가 있습니다. 시청이나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크게 안내가 되어 있고, 거길 누르면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7부터 7시 15분 정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시민강사는 15분하고 초청강사가 2시간 합니까?
- 담당자 : 평균 80분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 배심원 : 명사를 초청합니까? 참여인원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 담당자 : 주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30대부터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평균 200여명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 배심원 : 나는 15분짜리 말고 한 시간 반짜리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15분을 설정한 이유는 강의를 잘 못하는 분들이 하나의 짧은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15분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민과 주민이 서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따듯하게 서로를 채워주자는 의미의 강의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더 발전적으로 키울 방향도 생각 중이며 일단 많은 강사가 참여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 배심원 : 유명강사들을 초청할 때 바로 한다고 합니까?

- 담당자 : 스케줄이 되면 오십니다.
- 배심원 : 평생학습관에도 강의를 많던데 평생문화축제에도 나갑니까?
- 담당자 : 평생학습 한마당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공통되는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동아리도 만들어 일년에 한 번씩 발표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했던 것을 발표할 때 축진이 되기 때문에 신정호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홍보가 일반인들이 알기에 쉽지 않습니다. 배우고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내보내고 끝입니까?
- 담당자 :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부분에 동의하신 분들에게 제공합니다. 자발적으로 연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아산신문 나가는데도 안내합니까?
- 담당자 : 네, 하고 있습니다.

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대한민국 관광의 보고 아산! (3분임)

공약 조정 심의	3-11	쌀조개섬 수상테마파크 조성
-------------	-------------	-----------------------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당초 공약개요

- 사업위치 : 영인면 창용리 쌀조개섬 주변 (안성천)
- 사업규모 : 하천정비, 진입도로 개설, 수상레포츠 조성 등
 - 하천정비(쌀조개섬 202천㎡, 고수부지 379천㎡), 진입도로 개설 등
- 총사업비 : 509억 원(국비 497, 시비 12)
- 사업기간 : 2016. ~ 2026.
- 공약 취지
 - 고수부지 및 쌀조개섬 농경지 581천㎡에 대한 하천 생태환경 복원 및 친수기능 강화를 통한 하천기능 회복
 - 충남 북부에 새로운 관광단지 조성으로 주변지역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 기여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쌀조개섬 수상테마파크 조성
(변경후) 조정 내용 등	쌀조개섬(안성천) 생태수변공간 조성

○ 조정사유

- 관광단지 조성(쌀조개섬 및 배후단지)은 대규모사업으로 민간투자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나, 경기 불황으로 대규모 건설사의 관심 저조

- 대상지의 여건(농업진흥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쌀조개섬의 하천구역 제척 등)상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

■ 질의응답

- 배심원 : 안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관광단지 조성은 대규모 사업으로 민간투자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대규모 건설사 등 민간 투자 사업자의 관심이 저조하고 대상지 여건이 관계 법령상 제한으로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천과 섬에는 건축 행위가 불가능하며 모든 토지에는 수자원 보호 구역, 수자원 보호지구처럼 성격이 있습니다. 3미터 성토 이후 섬으로 가능하여 테마파크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보니 민간사업 투자유치 어려웠으나 8개 사업자가 신청하였으며 배후에 있는 관광단지, 산업단지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생태가 관광이 되고 자원이 되는 즈음에 하겠습시다. 관광에서 생태수변 구역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보존 지역인데 서울시청과 협약을 통해 거점 지구로 승인을 받아 실사설계 중에 다시 관광단지는 어렵겠다고 하여 수변생태 거점 지구로 승인받은 이후에 진행하였습니다.
- 배심원 : 남이섬으로 가려다가 안돼서 순천 생태습지로 가려고 합니다.
- 담당자 : 주민의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화장실, 관리 사무소, 무대, 수변체육시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 배심원 :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 담당자 : 국가천이고 관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 배심원 : 공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담당자 : 5년 정도 예상됩니다.
- 배심원 : 충남 서천군처럼 할 예정입니까?
- 담당자 : 신성리 갈대숲처럼 대규모 갈대숲으로 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 담당자 : 진입 도로는 지역산업 공모를 통해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2차선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직선도로가 들어올 것입니다.
- 배심원 : 주변 시설과 연계할 계획이 있습니까? 식재 계획이나 테마 구성, 아름다운 길 조성은 어떻습니까? 계절별 꽃을 식재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 담당자 : 갈대 등으로 식재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7만평은 굉장히 넓다. 유지·관리도 용이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핑크물리는 생태 검증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배심원 : 용역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담당자 : 용역 중에 있으며 읍면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주민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 배심원 : 하천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 담당자 : 바다처럼 보입니다. 아산만에 있고 안성천과 평택호가 있습니다. 국비 450억 확보했으며 사업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시민들에게 아름다움 공간을 돌려주려고 노력 중입니다.
- 배심원 : 단순히 도로보다는 조경에 힘을 써 아름다운 도로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담당자 : 가로수 식재도 갈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키 크기를 고려해서 배롱 나무 등 식재·도로 설계 때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에 주차장 계획이 있으며 화장실 등 편의시설 계획은 하천법에 맞게 하고 배후 단지 조성은 차차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도를 보니 한강 상류로는 섬들이 많은데 한강 이남에는 유일한 섬입니다. 생태수변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배심원 : 만약 관광객포화상태가 되면 주차장의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 담당자 : 300대 주차 가능합니다. 크게 한 번에 하게 되면서 실패가 잦습니다. 소소한 일상의 관광이 주류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소한 규모로 가는 것이 맞고 현실적인 제도 내에서 단계적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됩니다.

- 배심원 :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가져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 담당자 : 소유권을 국가이고 주소는 아산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공약
이행 평가

3-2

곡교천변을 활용한 '복합 체육여가공간'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사업명 : 곡교천변을 활용한 '복합체육 여가공간'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 위치 : 곡교천변 일원
- 사업량 : 마스터플랜 수립 1식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총사업비 : 0.5억 원 (시비 0.5억 원)
 - 2019년 : 0.5억 원 (시비 0.5억 원)
- 공약달성 최종목표 :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 그동안 추진현황

- 2019. 1. : 국내 선진지 견학(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등)
- 2019. 2. :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자문단(전문가) 및 TF팀 구성
- 2019. 3. : 자문단(전문가) 및 TF팀 회의 개최
- 2019. 5. : 용역계약 체결
- 2019. 6. : 용역 착수보고
 - ※ 마스터플랜 포함 내용
 - 체육여가공간 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방향
 - 곡교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체육여가시설에 대한 검토, 시설의 신설, 재배치 모색
 - 기타 곡교천변에 에코체육진흥센터, 곡교천과 아산시문예회관(가칭) 연결방안, 기타 곡교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의 활성화 방안 등 제시

○ 향후 추진계획

- 2019. 8. : 용역 중간보고
- 2019. 9. : 주민공청회 개최 및 자문단(협업TF팀) 회의 개최(2차)
- 2019. 12. : 마스터플랜수립 용역 완료

■ 질의응답

- 배심원 : 안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견학 후 마스터플랜을 위한 자문단 TF 팀 구성해서 4차례 회의와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눴습니다. 용역 최종 결과물은 12월 초쯤 나올 예정입니다. 곡교천은 26km로 아산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체육 시설을 신규 설치하고 재배치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기존 시설 중 유휴 시설(축구장)은 활용도가 떨어지고 사용도도 떨어졌습니다. 그런 공간들은 다른 공간으로 겸해서 쓸 수 있게 재배치하고 드론 시설,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하면서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지고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독일을 벤치마킹하여 다목적 광장 옆에 친화놀이터를 만들면 어떨지 생각했습니다. 하천 주변 시설은 엄격한 제한이 있는데 한도 내에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13조를 투자하여 3만명(9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을 때 인구가 늘어날 지역이고 인구를 흡입하기 위해서는 정주환경 개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기 좋으면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 관광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주민 50만 시대에 대비해서 비효율적 공간을 효율적 공간으로 재배치하고 2단계는 신생 시설입니다.
- 배심원 : 마스터플랜의 대략적 모습은 무엇입니까?
- 담당자 : 재배치와 신규 시설입니다. 권곡동, 염치 포스코 아파트 맞은편에 자전거길, 예술의 전당 신축을 고려 중이며 민속박물관 앞이 유력한 장소입니다. 더불어 에코 체육진흥센터 시유지에 짓는 안도 고려 중입니다. 침수가 되지 않는 공간에 스포츠타운 형식의 건물을 지을 예정이며 갈매 체육공원은 활용도가 떨어져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온천천과 곡교천 연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담당자 : 청계천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활용도가 떨어져서 온천천과 곡교천을 연결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연결성이 떨어지면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연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방, 탕정처럼 유동 인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곡교천은 수심 변동성이 커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구간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 배심원 : 독일을 벤치마킹한 공원 구간은 어디입니까?
- 담당자 : 구상일 뿐이며 사업지 결정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독일은 민관이 협동으로 해서 하는데(30억) 아산의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입주 후보로는 은행나무길 다목적 광장이 유력합니다. 두 번째는 갈매 체육공원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인구 유입이 늘고 있어서 고려 중입니다. 캠핑장과 샤워장은 하천법이 엄격합니다.
- 배심원 : 아산시의 소유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 담당자 : 국유 하천이어서 대전관리국토관리청에 허가가 수순인데 엄격합니다. 나무 6그루 심는데 6개월이 걸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사업 실행 전에 더 심도 높은 사전회의를 하여, 사업착수 시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트가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숙고, 연관 산업, 하청 업체가 들어올 것입니다. 또한 인구 50만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충남은 천안 아산을 발전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곡교천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아산시 스포츠 포털을 이용한 생활체육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차별 없는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 민간체육시설 이용 확대(태권도 도장 등)
- 총사업비 : 139억 원 (사업기간 2018. 7. ~ 2022. 12.)
 - 2019년 : 30.1억 원 (국비 6.7억, 도비 2.4억, 시비 21억 원)
- 공약달성 최종목표 : 1인 1생활체육 플랫폼 시행

○ 그동안 추진현황

- 2019. 8. : 충남장애인체력인증센터 개소
- 2019. 9. : 국민체력100 KSPO 아산체력 인증센터 개소
- 2019. 10. : 아산시 스포츠포털 홈페이지 고도화(1단계) 완료
- 미세먼지에 자유로운 유아 및 학생체육 시설 보급
 - 2019. 10. : 2개학교 실내 가상스포츠교실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제출(충청남도)
- 1인 1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기관 사업 연계 및 협업추진
 - 돌봄놀이터 개설 (6개소)/ 경로당 건강 체조교실 지원(15개소)
- 생활체육 지도자 추가확대 배치 (15명 → 23명, 충남 1위)

○ 향후 추진계획

- 미세먼지에 자유로운 유아 실내 체육시설 보급
 - 2019. 11. : 실내 가상스포츠교실 설치지원 사업 지원(월량초, 복수초)
 - 2019. 12. : 아산국민체육센터 내 유아체육학습장, 유아실내 축구장 조성

- 2020. : 아산시 스포츠포털 홈페이지 고도화(2단계) 구축
 - 체육시설물 온라인 사용신청 및 앱개발
- 2020. : 민간체육시설 활용 시범사업 추진
 - 시범대상시설 선정, 신규프로그램 개설 운영
- 생애주기별 생활스포츠 지원 확대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지원(어린이체능, 청소년체련, 장수체육대회)

■ 질의응답

- 배심원 : 안전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1인 1생활 체육은 아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든 원하면 체육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건강한 시민을 통한 복지를 목표로 합니다. 먼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체력 측정과 인증을 할 수 있는 체력 인증센터와 스포츠 포털을 만들고,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둔포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을 선정하였고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개관했으며 영인중학교에서는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를 15명에서 23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생활스포츠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영인 중학교 시설은 어떤 상황입니까?
- 담당자 :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데 학교 내에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들어가는 시설이며 아직 계획 단계입니다.
- 배심원 : 둔포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담당자 : 기본 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금과 예산확보는 되었고 어떤 시설을 들어갈 수 있는지는 미정이며 2021년 착공 예정입니다.
- 배심원 : 지역 주민 수렴은 언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담당자 : 아직 없습니다.

- 배심원 : 설계는 안하고 건물만 생각하는 것입니까?
- 담당자 : 2020년 3월에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접근성이 떨어져 쓸모가 없을 수 있습니다. 동네마다 조그마하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 담당자 : 공모되고 나면 절차대로 하는 것이며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를 모르고 있습니다.
- 배심원 : 무책임하다는 생각됩니다. 윤곽이 나와야할 시점인데 아직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배심원 :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오지 않았고 자료도 미비했습니다.
- 담당자 : 추후 자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 배심원 : 불링 교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담당자 : 추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약
이행 평가

3-5

아산 둘레길 단계별 조성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
- 사업위치 : 숲길, 마을길, 하천변 등을 둘레길로 연결
- 총사업비 : 14.5억원(2019년 2.25억 원)
- 사업내용 : 유형별 둘레길 조성
 - 등산로 중심 : 기존 등산로, 산성, 임도 중심의 산지형 둘레길
 - 하천변 중심 : 하천 등 천변길 중심의 전원·풍광형 둘레길
 - 저수지 중심 : 저수지 등과 연계한 수변 둘레길
 - 스토리 중심 : 문화유적, 인문학적 스토리텔링 연계 백의종군길
 - 생활권 중심 : 뒷동산 등 생활권 주변 산책길
- 공약달성 최종목표 : 6개 노선 150km 정비보완

○ 그동안 추진현황

- 2018. 11. : 둘레길 조성대상지 노선구상 및 우선순위 결정
- 2019. 06. : 현충사 둘레길 제막식 및 걷기행사 개최
- 2019. 07. : 백의종군로 둘레길 학술용역 완료(노선확정 등)
- 2019. 10. : 아산 둘레길 브랜드 디자인 확정
- 2019. 11. : 아산 둘레길 안내판 등 편의시설물 정비
- 2019. 3~11. : 2019 아산 둘레길 단계별 조성 사업 추진 ⇒ 54km

생활권중심 [10km]	[시내순환] 종합운동장-연산-청दै이고개-매봉산-남산-신정호-희안마을길-온양온천역하부 산책로
하천변중심 [18km]	[곡교천길] 모종뜰-온양천-곡교천(은행나무길)-실옥보-온천천
역사문화중심 [11km]	[현충사길] 현충사-충무교육원-방화산-백암리 [온 주 길] 청दै이고개-온양향교-당간지주-온주아문-종합운동장
숲길중심 [15km]	[도고권길] (선장포노을길연계)도고천-각골산-도고온천역-시전리-동막골(임도)-도고산-도고중학교

○ 향후 추진계획

- 2019. 둘레길 안내판 등 편의시설물 추가 설치
- 2020. 백의종군로 및 산성둘레길 조성, 둘레길 로드맵 작성
- 2021.~22. 송악저수지 수변 둘레길 조성 및 둘레길 노선정비

■ 질의응답

- 배심원 : 안전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아산에 우수한 문화 역사 자연을 활용해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숲길, 마을길, 하천변 등을 둘레길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54km 노선 정비를 진행하였습니다.
- 배심원 : 현충사의 둘레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 방화산을 한 바퀴 도는 구간으로 총 5km이며 유적지 안내판 옆에 둘레길 안내판을 배치했습니다.
- 배심원 : 투자도 좋지만 자연을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선 정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담당자 : 산길은 목재 계단을 놓고 있으며 노면 정리와 안전 높이를 지키고 있으며 주변에 꽃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송악저수지 둘레길은 완성되었습니까? 그리고 반딧불을 위해서 헤드라이트를 켜라는 표지판이 둘레길 끝까지 배치되어 있습니까?
- 담당자 : 총 4개 노선으로 끊어진 구간은 용역 후에 조성할 계획이며 봉곡사까지 연결되며 총연장 26km의 '천년의 숲길'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 그리고 반딧불 사업과는 달라서 알 수 없습니다.

- 배심원 : 송악저수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진주입니다. 예산을 들려서라도 둘레길을 조성해주었으면 합니다. 굴평리 둘레길은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담당자 : 기존 둘레길에서 보완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백의중군 둘레길은 어디입니까?
- 담당자 : 걸을 수 있는 길이어야 조성이 가능합니다. 도로 부분은 분리봉으로 설치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주 해암리의 개바위가 있는 곳에는 효의 길이라고 해서 내년에 사업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위험한 곳을 제거하고 연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테마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외암에서 송악저수지로 연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담당자 : 공모 사업 당시에 건의하여 선정되었습니다.
- 배심원 : 외암 마을까지 연결이 가능합니까?
- 담당자 : 노선 안에 외암마을을 포함 할 수도 있지만 신설 도로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 배심원 : 버스 노선은 있습니까?
- 담당자 : 네, 있습니다.
- 배심원 : 신정호를 모델링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라. 은행나무 길 달 밝은 밤 (4분임)

공약 조정 심의	4-12(2)	친환경 농산물광역물류센터 유치
-------------	---------	------------------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당초 공약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0년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광역물류센터 유치
 - 공약취지 : 친환경 농산물 물류비용 절감 및 유통망 확충을 위한 광역 단위 물류센터 유치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친환경 광역농산물 물류센터 유치
(변경후) 조정 내용 등	『아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 조정사유
 - 광역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유치 불가능
 -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신규설치 계획 미정
 - 충청남도 광역통합지원센터 유치 실패(부여군 선정)
 - 정부 및 충청남도 시설은 농협중앙회 등 민간에서 운영하므로 지역 경제 유발효과, 농가소득 증대효과 등 직접 효과 부족

■ 질의응답

- 배심원 :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생기면 이곳에서 바로 각 학교로 조달 되는 것입니까?

- 담당자 : 학교급식은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 물류시설이 아니며 핵심적으로 푸드 플랜을 실행하는 통합기구이다. 실제로 생산자를 육성하고 지역의 생산자들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작물을 키우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관내의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시설이 열악한 곳이 많기 때문에 공동조리장에서 조리를 하여 집단 배송을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직매장에 농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저장하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공동급식, 대학, 병원, 기업체 등의 급식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 배심원 : 학교급식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까?
- 담당자 : 별도의 시설운영이 있으며 총괄 관리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통합센터와 학교급식센터가 운영하게 됩니다.
- 배심원 : 저온저장고 등의 역할까지 수반하려면 건축물 연면적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면적이 책정된 것입니까?
- 담당자 : 관내 농협 등의 시설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부족하다면 향후 확대하여 확충할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원 : 공동조리장을 운영하면 영양사나 조리사들이 필요한데 20명 정도의 운영인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담당자 : 20명은 관리인원만 산출한 것이고 조리장이나 배송인력 등은 현재 추산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 배심원 : 충남에서도 비슷한 물류센터가 큰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더욱 큰 면적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 담당자 : 부지는 현재 지주와 매매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대 바닥면적으로 680평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향후 시설면적이 더욱 필요하다면 최대한 증설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초안단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거치면서 더욱 증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역센터는 충남에서 부여군에 지을 예정이라고 하며 부여 등 타 지역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연계 시군의 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배심원 : 부지는 현재 확정으로 변경될 여지는 없는 것입니까?
- 담당자 : 없습니다.
- 배심원 : 안전한 먹거리라고 할 때, 친환경 위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농약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 담당자 : 지역의 친환경 비율이 7%정도로 많지 않아서 나머지 90%의 농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중 30%정도는 대규모농가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치고 나머지 농가를 아산 로컬 푸드 인증제를 도입하여 점차 친환경 농가로 단계를 올리는 방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일반농가에서는 저농약으로 진행해도 농사가 힘듭니다. 농가에게 이런 어려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케어해 줄 것입니까? 친환경으로 진행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담당자 : 지금 상태로는 어느 정도 의지와 시간을 가지고 하시는 농가는 농자재들이 발전되어 있고, 아산의 지역 내 친환경 비율도 상위권이기 때문에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하여 제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 배심원 : 친환경은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 담당자 : 지금은 많이 엄격해졌습니다. 씨앗과 물, 토양검사를 모두 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은 믿고 드셔도 될듯합니다.
- 배심원 : 부지 매입은 다 된 것입니까?
- 담당자 : 지주들과 협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 배심원 : 3,400평 중에 600평만 건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담당자 : 용도구역 안에서 법적으로 600평으로 되어있습니다.
- 배심원 : 아산시의 유치원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 담당자 : 병설유치원은 학교에 포함되어 제외하면 사립은 26개입니다.
- 배심원 : 향후에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측하여 조금 더 사업 확장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담당자 : 시설은 학교급식센터의 공급인원은 약 45,000명 정도로 16명

의 상주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에서는 장기적으로 5만 명 정도 수용 가능하며 향후 수요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배심원 : 그곳은 식자재 배송만 해주는 것이고 현재 이 사업장과는 용도가 다른 것 아닙니까?
- 담당자 : 총괄적으로 하는 일은 아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 배심원 : 친환경 농가 비율이 낮다고 했는데 농민들에게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해서 친환경으로 유도할 계획이 있습니까?
- 담당자 : 친환경 확대교육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현재 부지매입을 시작한 것입니까?
- 담당자 : 그렇다
- 배심원 : 협의하는 중에 좀 더 광활하고 넓은 면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임기 내 공약 목표량 : 150만 그루
- 사업장소 : 공원·녹지, 택지 및 공단조성지, 도로변, 하천변 등 공한지
- 추진기간 : 2018. 7. ~ 2022. 6.
- 총사업비 : 99억 원 (국비 39.5억 원, 도비 13.7억 원, 시비 45.8억 원)
 - 2019년 : 39억 원 (국비 14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20억 원,)
- 공약달성 최종목표 : 150만 그루 나무심기를 통해 각종 개발 및 도시화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그동안 추진현황

- 2019. 1. : 15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계획 보고
 - 2019년 나무심기 목표 : 283천본
- 2019. 3. : 150만 그루 나무심기 착수식(着樹植) 시행
- 2019. 6. : 2019년 상반기 나무심기 실적
 - 주요 식재지 : 공원, 녹지, 도로변, 도시개발사업지, 조림사업 등
 - 상반기 실적 : 393천본 (2019년 목표대비 138%)

○ 향후 추진계획

- 2019. 12. : 2019년 15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완료
 - 인주산단, 문화로, 곡교천로 등 일원 공원, 녹지, 유휴지 식재
- 2019. 12. : 2020년 나무심기 대상지 사전조사 및 선정
 - 도로변, 온양중심권 공공부지, 유휴지, 국도변 교차로 등
- 연차별 계획적인 추진으로 임기내 '150만 그루 나무심기' 공약사항 이행

■ 질의응답

- 배심원 : 나무는 어떤 나무들을 심는 것입니까?
- 담당자 : 관목과 교목을 포함하여 150만 그루입니다.
- 배심원 : 나무를 심고 난 이후의 관리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담당자 : 나무를 심는 시기가 2월부터 식목일 이전이 적기인데, 4월까지 최대한 많이 심고 5월부터 여름이 지날 때까지는 관리 사업으로, 봄에 심은 나무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시내권에 필요한 곳에 나무를 심게 되며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필요한 곳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계속 해당 실과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당장은 나무를 심을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시청 뒤쪽에 있는 문화로와 천안쪽으로 가다보면 큰 대로변 주택가를 중심으로 심고 있으며 기존의 공원녹지에 많이 심고 있습니다. 심기 이전에 토양치환 등을 협의하며 심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몇 년이 지나도 잘 자라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토양치환을 진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관리 예산으로 2억을 확보하여 올해 심은 것에 대해서는 간수작업을 하여 90%이상 살려냈습니다. 2-3년 정도 관리를 하면 큰 나무로 숲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 배심원 : 매 해 나무를 심게 되면 나무를 심는 것보다 관리하는 비용이 비율적으로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비례해서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담당자 : 올해 시비로 세운 예산은 3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리예산만 2억으로 내년도 예산도 요구를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추정 예산으로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유희지 같은 곳은 현재 과에서, 공원 같은 곳은 녹지과와 공원관리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심은 나무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은 계속 유지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해당부지를 관리하는 과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 배심원 : 150만 그루라고 하였는데 시민에게 나누어주기 행사도 포함된 것입니까?

- 담당자 : 시민들이 심은 것까지 추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했습니다. 올해 23만 그루를 계획했는데 상반기 중에 11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별채를 한 이후에 또 다시 심은 것도 추산하였습니다. 산림청에서 국가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으로 20억 지원 사업이 있었고, 하반기에도 20억을 지원받아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둔포 산단 주변에 조성될 예정이며 시비사업과, 국비사업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여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150만 그루라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묘장을 운영하여 재배하는 나무를 심어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합니다.
- 배심원 :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 침엽수와 같이 가계의 경제활동에 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나무를 심는다면 미세먼지저감과 도시미관 등에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이나 국가의 사례를 참조하여 도시미관 측면으로도 고민을 해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담당자 : 상록수와 활엽수는 3:7정도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상록수를 심으면 상록수 밑에 그늘이 쳐서 빙판길이 되기 때문에 도로에 차가 지나가면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나면 햇빛을 받아 도로가 녹기 때문에 활엽수를 비율에 따라 심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고위험이 적은 지역을 위주로 상록수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낙엽이 떨어질 때 많은데 낙엽수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없습니다. 침엽수 종이 겨울에 흡수를 하기 때문에 상록수 비율도 고려를 하면서 진행해야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 배심원 : 벌목을 할 때 뿌리까지 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잡목이 생각보다 빨리 자라서 심은 나무들을 죽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지 않아 발생하기도 합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만 자생으로 클 수 있을 정도의 묘목을 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심어놓고 살아나지 못해서 나무가 죽어버리면 벌거숭이산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잡목관리도 필요합니다.
- 담당자 : 대부분 99%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벌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포트묘로 심어져서 활착률이 높습니다. 조림을 하고나면 3년 정도 법적으로 지원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관리도 더욱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관에서의 한계성도 있습니다.

- 배심원 : 관리를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 담당자 : 현재 공원과가 관리를 하는 어린이공원의 개소수가 50개 이상 되며 어린이 공원 중에서도 큰 공원이 많습니다. 관리 예산이 없다보니 제초는 1년에 2~3회 정도밖에 할 수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활착하기까지 2-3년이 걸리고 2년이 지나면 지주목을 제거하게 됩니다. 활착되기 이전까지는 관리에 더욱 손이 많이 가지만 다른 근로방안을 진행하기에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
- 총사업비 : 69.5억 원 (도비 8.4 시비 61.2)
 - 2019년 : 6.5억 원 (시비 6.5)
- 주요내용 : 공공급식(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1식/1일)
 - 사업량 : 어린이집(425개소 13,638명), 지역아동센터(39개소 1,123명)
- 공약달성 최종목표 :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친환경 급식 확대

○ 그동안 추진현황

- 2018. 어린이집 친환경쌀(참쌀) 지원(439개소, 194톤)
 - 1일 1식(친환경쌀 50g, 참쌀5g) 연간 220일
- 2019. 1. 공공급식(친환경) 확대 방안 관련부서 협의
 - 협업과제 지정 추진(4개과, 5개팀 협업 추진)
- 2019. 2. 아산시 푸드플랜 기본계획 수립(공공급식 기능강화)
- 2019. 10. 어린이집 친환경쌀(참쌀) 지원(425개소, 136톤)
- 2019. 11. 아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 향후 추진계획

- 2019. 12.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건립 및 중간지원조직 설립 추진
- 2020. 2.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급식 농산물 소비량 조사 용역
- 2020. 3.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현물지원 사업 시행
- 2021. 3.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 현물지원 사업 시행
- 2021. 9.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준공 및 친환경 급식 본격 시행

- 재정현황을 고려하여 연차별 대상 및 규모 확대 추진

■ 질의응답

- 배심원 : 센터로 재료를 보내는 것입니까?
- 담당자 : 어린이집에는 원물로 공급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점심, 저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점심은 원물로 보내고 저녁은 조리를 해서 보내게 되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 배심원 : 수요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아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규모가 모자라지 않도록 설립해야 할 것입니까?
- 담당자 :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상황에 맞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다른 지역에 비해 아산시의 급식이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농민과 상생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 담당자 : 농업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을 보존하려는 의미도 있고 농업지속가능성측면도 있습니다. 지역소비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학교급식은 지역에서 생산하여 소비가 되는 것이 유통거리도 짧고 신선도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배심원 : 일반 소비자가 친환경작물을 구입할 수는 없습니까?
- 담당자 : 직매장에서 가능하지만 품목 공급량이 많지 않습니다. 향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생기면 규모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위 치 : 금곡천 합류부~곡교천 합류부(모종동, 신동, 풍기동, 남동)
- 사업규모 : 생태하천 조성 L=4.0km
- 사업기간 : 2016 ~ 2021
- 총사업비 : 308억 원 (국비 154억 원, 시비 154억 원)
 - 2019년 : 5.3억 원 (국비 5.3억 원)
- 공약달성 최종목표 :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 그동안 추진현황

- 2017. 2. 14.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8. 7. 13. : 사업계획변경 승인(금강청, 보상·용역비 등 증액)
 - 총사업비 189 → 308억 / 사업기간 : '16~'19 → '16~'21
- 2018. 11. 7.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연('19.12.예정)
- 2019. 3. 26. : 하천구역 포락지 등 편입토지 보상협의
- 2019. 4. 25.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련 환경현황조사 시행
- 2019. 4. 30. : 편입토지 등 2차 보상협의 요청

○ 향후 추진계획

- 2019. 12. : 온양천 하천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2020. 3. : 사업계획 변경 승인(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 2020. 5. : 생태복원심의(충청남도)
- 2020. 7. : 공사 착공

- 2021. 12. : 공사 준공

■ 질의응답

- 배심원 :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 담당자 : 은행나무길 이마트 지나서 다리를 건너면 온천교부터 상·하류 2km 정도로 양쪽 범위입니다.
- 배심원 : 밑을 파서 나루터 식으로 조성하여 이순신장군사업과 함께 연계하여 추진할 수는 없습니까? 현충사가 있기 때문에 아산의 관광브랜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담당자 : 온양천 생태복원보다는 곡교천 마스터플랜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변을 이용한 휴양놀이 시설이용에 대한 것은 과거에 시에서도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수요의 문제로 있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원 : 생태하천에 물넘이 시설은 가능합니까?
- 담당자 : 물넘이 시설, 여울이나 징검다리 등은 가능합니다.
- 배심원 : 온양교회 밑에도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다만 관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아산시민들이 잘 활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천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담당자 :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원 : 생태하천을 조성할 때 생활체육시설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 담당자 : 환경부 생태하천사업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런 사업은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마. 시샘 (5분임)

공약 이행 평가	5-2	도시재생의 차질없는 추진
-------------	-----	---------------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위 치 : 온천동, 실옥동 일원
- 면 적 : 160,225m²
- 총사업비 : 1,167억원(국 100, 도 20, 시 47, 기타 1,000)
 - 2019년 : 66.5억 원(국비 39.9억 원, 도비 8.0억 원, 시비 18.6억 원)
- 사업기간 : 2019. ~ 2022.
- 공약달성 최종목표 : 공모선정 및 보육 • 교육시설 준공

○ 그동안 추진현황

- 2018. 1. : 여성친화 도시재생 업무협약 체결(여가부, 아산시)
- 2018. 6. :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발대식
- 2018. 7.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서 제출
- 2018. 8.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 2018. 12. :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19. 1. : 온양원도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
- 2019. 3. :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9. 5. :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신청
- 2019. 6. :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사업부지(공영주차장 외1) 매입
- 2019. 7. :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국토부)
- 2019. 10. : 온양원도심 여성커뮤니티센터 설계용역 착수

- 향후 추진계획
 - 2020. 10. : 양성평등거리 사업(여성커뮤니티센터) 착수
 - 2020. : 어울림마을 조성사업 착수
 - 여성/청년 창업거리 조성사업 착수
 -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 착수
 - 온양행궁 복원 재현사업 설계 착수
 - 2021. : 마을관리협동조합 구성 착수
 - 2022. :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각종 시설물 준공 및 사업완료

■ 질의응답

- 배심원 : 장미마을의 조성사업은 6기부터 진행해온 사업입니까? 현재 상황이 정리 중입니까? 그리고 여성들에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 담당자 : 현재 7개 업소가 있습니다. 정리해야할 부분이며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 배심원 : 추진율이 50%라고 하는데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담당자 : 사업의 시작에서 착수까지의 행정처리를 50%로 보며 2022년 사업으로 2019년 7월에 사업허가를 받아 설계와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 배심원 : 광범위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사업별로는 어떻습니까?
- 담당자 : 동시다발적이지만 사업에 따라 잘되는 사업이 있고 안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 배심원 :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 담당자 : 167억이 행복주택이고 나머지 1,000억정도를 더해서 1,167억 정도입니다.
- 배심원 : 아산시만 60년을 살았습니다. 다른 시도 장미마을의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 담당자 : 여성친화의 내용으로는 처음이며 다른 시에서는 콘셉트를 다

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 배심원 : 벤치마킹으로 따라하는 사업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 습니다. 여성회관이 들어서는지입니까?
- 담당자 : 여성 크리에티브 거점으로 여성회관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7개의 업소를 완전히 없앨 예정입니까?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아납니까?
- 담당자 :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업소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사서 보상을 해야 하는데 보상부분에서 업소와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심원 : 사업추진을 한다면 운영자금과 방침부분 내용은 무엇입니까?
- 담당자 : 다른 지역을 보면 후에 관리부분을 장치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준비를 해야 합니다.
- 배심원 : 여성창업부분과 도시재생내용은 좋지만 재생현황부스도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 다시 사용하거나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홍보부분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담당자 : 현장에 가보시면 홍보부분을 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부분 방법을 간구하겠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원 : 행정복지센터의 이전이 있습니까?
- 담당자 : 네, 온양1동이 그렇습니다.
- 배심원 : 온양관광호텔의 주차장 부지는 확보되었습니까?
- 담당자 : 주차문제가 심각한 부분이라 2~4층을 주차장으로 하는 주차 빌딩을 만들어 진행할 생각입니다. 생활 SOC 사업으로 선정해서 주차장과 상가 등 건물을 다시 지을 예정입니다.
- 배심원 : 어울림마을 조성은 어디에 합니까? 시장 있는 곳입니까?
- 담당자 : 시장위에 위치해 있으며 주소는 11통입니다.
- 배심원 : 현재 몇 집이 남아 있습니까?

- 담당자 : 주거시설로 이용하려고 하며, 80%가 보상된 것으로 압니다.
- 배심원 : 모산역 건물은 그대로 있습니까?
- 담당자 : 허물고 문화플랫폼과 문화어울림공간으로 공연과 카페, 교육 강의실 등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민협의체가 운영하여 운영비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 배심원 : 폐철도의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 담당자 : 약 1km정도이며 60m, 25m정도 됩니다.
- 배심원 : 커뮤니티거점공간은 새롭게 들어서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 담당자 : 기존 건물을 이용해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1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 배심원 : 용역창고부분과 공연은 어떤 내용입니까?
- 담당자 : 모두 3동으로 60~80석정도로 규모가 크지는 않고 커뮤니티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 배심원 : 예산을 측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홍보를 목적으로 예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 담당자 : 사업비가 정해져있어 사업비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심원 : 수요조사를 적절하게 조사하고 시작했는지 궁금하고 아산 청소년시설장을 사용을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담당자 : 수요조사는 구민들이 원해서 실시하였고 시설은 초등학생과 유치원아이들이 사용하는 작은 공간으로 주민들이 제안하신 것입니다.
- 배심원 : 문화어울림공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2층 건물 정도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료의 분홍색 부분은 마을 사업내용입니다.
- 배심원 : 추후 수시로 사업내용이 변경 가능한 것입니까?
- 담당자 : 사업내용의 변경사항은 없으며 발주만 남아 있는 상황으로 착

공을 해야 하며 커뮤니티센터도 바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행복한 골목길 사업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담당자 : 골목길에 폐가들이 있어 건물을 허물고 쓰레기 분리사업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부담으로 총 700만원, 창틀이 낡아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있는 공간을 편안하고 살기 좋은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상권 활성화사업인데 관의 지속적인 개입은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하기에 수익사업으로 재투자가능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민대학, 카페, 회의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모산역도 사업공모인지 궁금하고 아산청소년문화센터도 거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될 수 있는 사업이라 걱정됩니다.
- 담당자 : 주민들의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모산역에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도서관 수영장 인근에 배치, 연계하여 사업하려고 합니다.
- 배심원 :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는 어떤 내용입니까?
- 담당자 : 마을 안에서 협동조합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신설사업은 아닙니다.
- 배심원 : 세무서는 개발이 되는 것입니까? 옹기는 것입니까?
- 담당자 : 세무서측에서 임주를 거부하고 있어서 계속 협의 중입니다.
- 배심원 : 폐철도사업은 지방자치사업으로 매입하는 것입니까?
- 담당자 : 감정평가입니다. 10개년 간 매각성으로 협의 중이며 진행은 거의 되어있고 시행만 하면 됩니다.
- 배심원 : 재생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사업을 다시 재생 해야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담당자 : 돈을 좀 드려서 거주하며 지역민들의 자질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건의 중입니다. 6기째 강사들이 가르쳐 주고 매주회의와 학습을 하고 있으며 건의한 사업으로 본인들이 심사해서 시행하고 것으로 사업 보조금을 주는 내용으로 진행 중입니다

- 배심원 : 재생사업에 대한 인식의 병행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 담당자 :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풍기역(가칭) 신설사업
- 위 치 : 온양온천역과 배방역 사이
- 사업규모 : 역사 1개동, 고상홈 2개소
- 총사업비 : 247억 원(보상비, 영업손실 보전 제외)
- 공약달성 최종목표 : 풍기역(가칭) 신설 확정

○ 그동안 추진현황

- 2018. 12. : 풍기역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
- 2019. 1. : 착수보고회 개최
- 2019. 6. : 중간보고회 개최
- 2019. 8.~10. : 관련기관(국토교통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2019. 12. : 풍기역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
- 2020. 1. : 풍기역 신설 요청
- 2021. 12. : 풍기역 신설 확정

■ 질의응답

- 배심원 : 위치가 어디입니까?
- 담당자 : 이순신종합운동장과 남동, 그리고 이마트의 가운데정도로 경제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결정하여 발표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택지개발제안으로 이 역사에 영향을 주기에 개발이 될 것입니다.

- 배심원 : 굳이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담당자 : 철도 인프라는 우리 후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초기 당시 유치하기 위해 사용된 예산이 많은데 국가기관망이 들어오면 손실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은 집계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아산의 경우는 집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택지개발로 8~9년이 되면 서울역에서 최전방으로 가는 SOC 사업의 성과가 될 것입니다. .
- 배심원 : 풍기역 타당성과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 담당자 : 선정이 되었고 추진 중입니다.
- 배심원 : 전철노선이 풍기도 잘 사는데 풍기역이 오는 것이 가능합니까?
- 담당자 : 풍기역이 표시가 되어 있어도 승인된 것이 아니며 승인이 쉬운 것이 아니기에 승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온양온천과 배방사이가 멀게 느껴지지 않는습니까?
- 담당자 : 서울에는 600m 구간도 있습니다. 1km당 200억이 소요되며 2006년도에는 실증검증이 없었으나 이후에는 밀도 높게 되고 있습니다. 장항선도 전동차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만들어 놓으면 역사가 됩니다.
- 배심원 : 이순신종합운동장의 수요가 많아서 전철이 생겨야 하지만 평택, 전주, 천안에서 많이 이용하는데 전철이 있다면 배방에서 더 오고 싶을 것 같습니다. 역발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담당자 : 예전에는 5분에서 10분정도 걷는 것을 못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시민의식이 높아져 도보 3km이내는 걸어서 다닙니다. 시대적인 변화입니다. 체육문화시설과 함께 시너지가 되고 국비로 자연친화적으로 배방과 남수지역이 진행되며 후대에 좋은 환경으로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 배심원 : 복계천은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 담당자 : 절대농지지역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읍면 농림지역 진흥공원으로 채택되면 국토부나 농림부의 승인이 없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 경제성이 없어 노선에서 빠지게 됩니다.

- 배심원 :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꼭 신설하기 바랍니다.
- 배심원 : 12월에 올린다는 내용인데 결정된 사안이 아닙니까?
- 담당자 : 확정되는데 3년이 걸립니다. 2018년과 2019년 1년간 설득할 것입니다.
- 배심원 : 만약에 국토부에서 신설하게 되거나 반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담당자 : 재추진기간을 한동안은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 배심원 : 역이 신설되면 도시가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산을 위해 역 자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자차로 지하철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완책이 필요해보입니다.

공약
이행 평가

5-21

장존-외암마을 간 4차로 확포장 공사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위 치 : 장존동 ~ 송악면 외암리 일원(국도39호선)
- 사 업 량 : 도로 확장(2→4차로), L=1.60km
 - 1구간 : 장존~외암삼거리, L=1.07km, 149억원
 - 2구간 : 외암삼거리~외암마을, L=0.53km, 86억원
- 사 업 비 : 235억 원
- 사업기간 : 2017. ~ 2022.
- 공약달성 최종목표 : 도로준공 및 사용 개시

○ 그동안 추진현황

- 2016. 12. : 1구간 실시설계 착수('16.12.~'18.08.)
- 2018. 3. : 1구간 주민설명회 개최(2회)
- 2018. 12. : 1구간 공사 착공
- 2018. 1. : 2구간 국도병목지점개량(6단계) 기본계획 반영
- 2018. 8. : 2구간 실시설계 착수

○ 향후 추진계획

- 2019. 12. : 2구간 실시설계 완료
- 2020. 3. : 2구간 공사 착공
- 2021. 12. : 1, 2구간 공사 준공 예정

■ 질의응답

- 배심원 : 아산장존동청솔아파트 앞 지나서 교차로는 없고 계속 도로가 확장된다는 것입니까? 아산장존동청솔아파트쪽으로 올 때 대부분의 차

량들이 불법유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담당자 : 우회도로 올라오고 내려오는 교차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교차로가 개설되면 그 부분이 보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배심원 :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 담당자 :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도는 아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진행되고 우리는 협조하는 차원입니다.
- 배심원 : 아산시로 들어올 때 우회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길이 길처럼 보이지 않고 표지판이나 이정표가 없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 병목현상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외암민속마을에 오는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 담당자 : 현장을 둘러보고 감리관과 수시로 소통하여 임시라도 표지판과 이정표를 설치하겠습니다. 공사 중이라 안 된다면 입간판으로라도 만들겠습니다. 향후 교차로가 만들어지면 개선될 것입니다.
- 배심원 : 구에서 길의 위치를 타지역민이 알 수 있도록 개선바랍니다.
- 담당자 : 램프의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산천안부분 현충사 지하도 부분 지하도 상부, 현충사를 알리기 위해 지붕을 현충사를 알리고, 거북선 조형물도 설치하여 현충사구나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안과 협의하여 조명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 배심원 : 장위원 사거리 양 우회하는 도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시설팀장이 도로 확장과 내용이 다릅니다.
- 담당자 : 국도이며 우리의 관리감독은 아닙니다.
- 배심원 : 땅의 매입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담당자 : 강제수용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차로개선 건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삼막골 다리를 먼저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담당자 : 낚시가게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가

계는 걸리지 않습니다. 교량은 온양온천 상류로 보시면 됩니다.

- 배심원 : 아산시 공무원설계부분 문제가 많았습니다.
- 담당자 : 아산시의 사업이 아닙니다.
- 배심원 : 농노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 담당자 : 관리주체가 다릅니다.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아래 농노가 있으며 도로로 지정이 안 된 도로일 수도 있습니다.
- 배심원 : 대지와 도로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 담당자 : 도로는 3분의 1로 가격책정이 됩니다. 불편한 것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사업개요

- 위 치 : 아산시 온양온천시장(온천동 41-2번지 외)
- 사 업 량 : 대지 - 2,588㎡ , 연면적 - 2,500평(지상5층)
- 총사업비 : 150억 원 (국비 66억 , 시비 84억)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공약달성 최종목표 : 1층 창업공간, 2층 고객지원 및 힐링센터 등,
3~5층 주차타워를 갖춘 복합지원센터 준공

○ 그동안 추진현황

- 2018. 3. 14. :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증축 계획 검토
- 2018. 5. 18. ~ 6. 18. :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확대 조성 설명회(2회)
- 2018. 8. 13. : 지역 밀착형 생활SOC사업 신청→국가균형발전위
- 2018. 10. 11. ~ 2019. 1. 30. : 주차타워조성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3회)
- 자문기관 : 충남발전연구원, (주)소울랜드스케이프
- 2018. 10. 13. ~ 2018. 10. 23. :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 자문(3회)
- 자문기관 : 소상공인진흥공단 최희선 자문위원
- 2019. 2. 26. : 지역 밀착형 생활SOC사업 신청→충청남도
- 2019. 4. 5. : 지역 밀착형 생활SOC사업 현장평가(도,중기부,전문가)
- 2019. 5. 7. : 주차환경개선 공모 최종 선정(사업비 110억 확보)
- 2019. 6. : 복합지원센터 건립 대상지 이해 관계자 자료 수집
- 2019. 7. :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 2019. 8. 2. :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사업추진협의회 설명회 개최

- 2019. 9. 24. :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2019. 10. 24. :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의회 승인)

○ 향후 추진계획

- 2019. 11. :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기본계획 용역 착공
- 2020. 1. : 토지 및 편입지장물 감정평가 실시
- 2020. 2. : 공영주차타워 손실보상 협의요청(토지소유자)
- 2020. 2. : 공영주차타워 도시계획시설결정 착공
- 2020. 5. : 공영주차타워 도시계획시설결정 준공
- 2020. 5. :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건축 설계 공모
- 2020. 9. : 공영주차타워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 2020. 10. : 공영주차타워 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착공
- 2021. 3. :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 착공
- 2022. 3. :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 준공
- 2022. 4. : 온양온천시장 주차장 등 활용

■ 질의응답

- 배심원 :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주시 바랍니다.
- 담당자 : 상도시장 54개 전포를 모두 허물고 1층에는 상인회를 2,3층 주차장에는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상설시장 점포들을 다 들어낸다는 것입니까?
- 담당자 : 안에 있는 것이 다 없어진다는 내용입니다.
- 배심원 : 공터처럼 비어 있는 곳은 어떻게 하며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 담당자 : 옷 수선 26포가 있으며 내년도 1월에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하려고 합니다. 시 부지에서 40년 동안 장사하신 것입니다. 2018년도 2월 2일자로 가장 필요한 것이 주차타워였으며 1년간의 준비로 국비를 따

온 것입니다.

- 배심원 : 매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담당자 : 내년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 배심원 : 사유지 몇 평정도 됩니까?
- 담당자 : 사유지는 512평이며 국유지 196평, 기타 74평으로 총 780평정도 규모입니다.
- 배심원 : 시장 맞은편 길쭉한 시장라인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습니까?
- 담당자 : 시장 같은 경우는 부지가 없으나 사유지라서 선정이 됩니다.
- 배심원 : 진출입은 어떻게 됩니까?
- 담당자 : 시민로 시청으로 가는 길로 되어 있습니다.
- 배심원 : 경찰서 주차장 진출입이 함께 있어 불편합니다.
- 담당자 : 여기는 대형버스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주차장 완공은 2022년도 완전히 되는 것입니까?
- 담당자 : 토지보상이 빨라지면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 배심원 : 주차권은 어떻게 됩니까?
- 담당자 : 재래시장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30%에 500원씩 저렴하게 할 것입니다.
- 배심원 : 구 경찰서 자리에 돌봄센터 같은 시설을 더 만드는 것입니까?
- 담당자 : 네, 그렇습니다.
- 배심원 : 시장의 편의성이 있습니까?
- 담당자 : 다른 시장에 비해 열악한 편이지만 전국 100대 시장에 들기도 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 배심원 : 주차장이 좋아지면 시장의 문제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 담당자 : 문제 개선을 위해 공청회 3회 등 열띤 토론으로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비 150억이지만 실제설계는 더

들어갑니다.

- 배심원 : 지상5층이면 주차가 가능한 차량 수는 얼마나 됩니까?
- 담당자 : 210대입니다.
- 배심원 : 공산품의 품목을 정해주고 야채는 상인들이 입주하여 판매하는 것과 같은 계획이 있습니까?
- 담당자 : 이마트에서 추진 중이며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상인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배심원 : 주차장 조성도 좋지만 똑같은 먹거리인 거 같습니다. 그 외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변경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담당자 : 교육을 계속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라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배심원 : 입출구가 한곳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담당자 : 대형버스 진입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실제설계하면서 합당한 지 점점을 받으려고 합니다.
- 배심원 : 혹시 지하는 없습니까?
- 담당자 : 지하는 없습니다.
- 배심원 : 롯데마트 빼면 쇼핑할 곳이 없습니다.
- 담당자 : 설계할 때 고려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진짜 큼니다.

3. 분임별 토의 내용 및 결과

가. 부영이 (1분임)

공약 조정 심의	1-13	곡교리 수문 및 배수펌프장 설치
-------------	------	-------------------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곡교리 수문 및 배수펌프장 설치
(변경후) 조정 내용 등	곡교천일원 농경지 침수예방사업 추진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4(조건부1)	0	0	27	2	1	30
2차 조사	5	0	0				

■ 찬성의견

- 곡교천에 나무나 갈대 등이 많은데 장마나 폭우 시 다리 교각에 나뭇가지나 쓰레기가 걸려 침수가 심해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곡교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러면 배수펌프장이 구태여 필요하지 않을 것임. 조정에는 승인 의견임.
- 배수펌프장 설치는 삼교방조제 수문 증설하면서 수위가 낮아지게 되므로 필요는 없을 것임. 곡교천에 물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조사하여

준설 및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 곡교리는 물이 합류되는 곳이므로 상습 침수 지역임. 삼교천 수문 증설 되므로, 현 상황에서는 준설 문제가 더 시급한 것 같음. 준설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여 피해를 방지해야 하겠음.
- 준설 문제가 환경단체와 협의된 것인지 의문임. 생태계는 파괴되면 복원되기 어려움.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임. 환경단체의 동의를 조건부로 승인 의견임.

■ 반대의견

- 없음

■ 기타의견

- 없음

■ 최종결론

- 분임토의 1, 2차 투표 결과 조정안에 배심원 중에서 5명이 전원이 찬성 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7명이 찬성,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 공약사업 개요

- 「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면 개정
 - 주요내용 : 원인자부담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징수 방안 등
- 공약달성 최종목표 : 도로 및 인도공사 책임시행

■ 시민배심원단 권고안

- 시민이 참여하여 도로의 하자 및 기타문제점 등을 조사하고 발굴하는 제도를 적극 운영해야 할 것임.
- 가스·수도 배관 등 다양한 매설물들의 통합 관리를 위한 지하시설물을 개량할 필요가 있음.
- 전신 지중화를 통해 전기·통신 등을 일괄 관리하고 미관도 개선했으면 좋겠음.
- 전동휠체어와 자전거 이용이 안전하고 용이하도록 도로·인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음.

공약
이행 평가

1-9 건축물에 대한 소방·내진 설치기준 적용 및 조사강화

■ 공약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 7. 10. ~2019. 12. 31.
 - 1단계 조사 ' 18. 7. ~ ' 18. 12. / 2단계 조사 ' 19. 1. ~ ' 19. 12.
- 사업량 : 건축물 3,627개소 (2018년 876개소, 2019년 2,751개소)
- 조사대상 : 화재취약건축물(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
- 조사내용 : 소방, 건축, 전기, 가스시설 각 분야 (조사운영지침 의거)
- 조사방법 : 5개반 편성 조사 (1반 구성 : 소방 1, 건축 1, 보조 1)
 - 건축분야 조사 인력 : 5명(건축직 직원 1명, 경력직 채용 4명)
 - ※ 파견 가능 인력 부족으로 건축직 소속 부서 별 1명 순환 근무 중
- 공약달성 최종목표 : 사업량 모두 조사하여 시설개선 및 화재 대응력 강화

■ 시민배심원단 권고안

- 법규 위반 단속 이후 사후조치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빈 집이나 빈 상가의 경우 점검하여 전기·가스 등 화재 발생 요인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조사 인력을 더 보강하여 점검을 더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건축물 안전 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음.

■ 기타의견

- 건축 과정에서 가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주거급여 제도를 보강하여 불량건축물에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음.

공약
이행 평가

1-12

안전사각지대 CCTV 확대

■ 공약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 7. ~ 2022. 6.
- 사업량 : 방범용 CCTV 확대 196개소 588대, 저화질 CCTV 143대, 노후 CCTV 436대 교체
- 소요 예산 : 29.1억 원(확대설치 22.9. 교체설치 6.21)
- 총 사업비 : 29.1억 원 (국비 3, 도비 4.7, 시비 21.4)
 - 2019년 : 12.4억 원 (국비 3, 도비 4.7, 시비 4.7)
- 공약달성 최종목표 : CCTV 확대(신규 및 성능개선) 설치 : 1,167대

■ 시민배심원단 권고안

- CCTV 확대도 좋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홍보·계도 등으로 시민들에게 주지시켜야 하겠음.
- 사각지대·취약지대 CCTV 보강 필요함.
- CCTV를 동일한 검은색으로 하기보다 용도에 따라 보기 좋은 색상이나 디자인 등을 적용하면 좋겠음.

■ 제안이유

- CCTV 확대도 좋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홍보·계도 등으로 시민들에게 주지시켜야 하겠음.
 - 민식이법이 통과되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들이 여전히 많음. 보행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함. 어린이 보호구역의 취지, 법규 위반 시 처벌사항 등을 시민들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CCTV를 동일한 검은색으로 하기보다 용도에 따라 보기 좋은 색상이나 디자인 등을 적용하면 좋겠음.

• CCTV가 늘어나면서 삭막해지는 점도 있음.

■ 기타의견

○ CCTV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를 잘 보이게 하였으면 좋겠음.

나. 복지천국 (2분임)

공약 조정 심의	2-5	배방월천초·모종중·탕정일반고· 장영실과학기술고 신설추진
-------------	-----	-----------------------------------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변경(일부폐기)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배방월천초·모종중·탕정일반고·장영실과학기술고 신설추진
(변경후) 조정 내용 등	배방월천초·모종중·탕정일반고 신설추진 (장영실과학기술고 삭제)

○ 조정사유

- 국가교육정책 전환으로 목표 달성 한계
- 특목고 폐지, 정부(교육부) 정책방향 발표 (2019. 10. 25.)
 - 특목고 2025까지 폐지, 일반고 강화의 정책 전환
- 학교신설 시행기관인 도교육청의 부정적 입장 표방
 - 충남 학생 인원을 고려할 때 과학고 추가신설 불가 입장 고수
 - (천안시도 과학고 신설 제안한 적이 있으나 미승인)
- 대안 검토사항인 충남과학고 이전 가능성 희박
 - 학교 노후로 이전 신축이 거론 되었으나, 주민 반발 등의 문제로 타 지역 이전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6	0	-	24	5	1	30
2차 조사	6	0	-				

■ 찬성의견

- 장영실과학기술고가 공약에 있었지만 정부와 도교육청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으니 우리시가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여 조정안에 찬성함.
- 특목고가 2025년까지 폐지되고 일반고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학생수 감소까지 되는 마당에 학교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국가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므로 공약에서 장영실과학기술고를 삭제하는 것에 동의함.
- 현 상황에서 장영실과학기술고에 투입하려고 했던 예산을 다른 학교교육에 투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조정에 찬성함.

■ 반대의견

- 없음

■ 기타의견

- 애초 장영실과학기술고를 설립하려했던 것은 우리 관내의 여러 기업들에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양성하자는 취지였을 텐데 현실적인 문제로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아쉬움. 앞으로 세계화시대에 맞춰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재들이 필요할 텐데 우리 아산시가 시대를 앞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최종결론

- 분임토의 1, 2차 투표 결과 조정안에 배심원 6명 전원이 찬성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4명이 찬성, 5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해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 조정 심의	2-10	충남도와 연계한 70세 어르신 버스비
---------------------	-------------	-----------------------------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충남도와 연계한 70세 어르신 버스비 무료 추진
(변경후) 조정 내용 등	충남도와 연계한 노인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

○ 조정사유

- 충남도지사와의 연계 공약으로 충남도에서 공약 변경 절차 진행 중 (7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연령 상향조정)
- 충남도 지원 없이 우리시 자체시행은 재정부담 증가로 추진 어려움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6	0	-	22	6	2	30
2차 조사	6	0	-				

■ 찬성의견

- 우리 아산시 자체적으로 이미 65세 이상에게 하루에 한 번만 결제하면 이후엔 무한 무료 승차가 가능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라, 재정 부담이 많이 되는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 지원 대상을 75세로 바꾸자는 의견에 반대할 이유가 없음.
- 고령화시대에 70세 이상을 75세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미 아산시는 65세 이상 버스비지원 사업이 추진 중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음.

- 아이 출산이 드문 시대에 노인들의 복지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여러모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미 하고 있는 교통복지예산만으로도 충분하고 생각하여 조정안에 찬성함.
- 당초 70세 이상이 아산시장의 공약이었지만, 충남도지사의 공약이 75세 이상인지라 충남도 전체가 대상자를 70세에서 75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음. 우리시도 그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게다가 65세까지 교통비 지원을 하는 것은 고령화시대에 너무 과하다고 생각함.

■ 반대의견

- 없음

■ 기타의견

- 없음

■ 최종결론

- 분임토의 1, 2차 투표 결과 조정안에 배심원 6명 전원이 찬성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2명이 찬성, 6명이 반대, 2명이 기권해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
이행 평가

2-15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조속추진

■ 공약사업 개요

- 건립부지 : 충남 아산시 용화동 산39번지 일원 14,900m²
- 건축규모 : 연면적 13,700m²(지하1층, 지상5층), 150병상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4개년)
- 사업비 : 270억원(국비 135, 도비 94.5 시비 40.5)
- 공약달성 최종목표 : 충남권역재활병원 개원(2021. 3.)

■ 시민배심원단 권고안

- 병원 내의 편의시설(커피숍이나 매점 등)을 장애인이나 취약계층들에게 불하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음.

■ 제안이유

- 병원 내의 편의시설(커피숍이나 매점 등)을 장애인이나 취약계층들에게 불하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음.
 - 가급적 우리 관내 업체들에게만 입찰 기회를 줬으면 함.

■ 공약사업 개요

- 역량 있는 시민이 강사로 직접 참여하는 「시민 강연의 장」 마련
- 시민강사 발굴 및 시민 대상 공개 강연 기회 제공
- 운영방법 : 단계별 진행을 통한 사업 추진 및 지속 가능성 확보

시민강사 공개모집	강연 대상자 선정	강연 기회 제공	성장 지원
연중 강사 공개모집을 통한 인적자원 발굴 및 확보 (시민강사풀 구성)	강의능력과 강연내용 종합 검토	행복아산 시민아카데미 시, 본 강연에 앞서 시민강연회 '시민강연 36.5℃' 개최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 공약달성 최종목표 : 행복아산 시민아카데미 시 시민강연 실시

■ 시민배심원단 권고안

- 강사인력을 다양한 직능별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강사발굴을 위해 읍면동사무소와 각 마을 이장들을 통해 진행하면 좋겠음.
- 강연내용이 성공사례 뿐만 아니라 실패사례도 강연할 수 있도록 할 것 임.
- 자발적 신청과 함께 강사 추천을 받아 강사 인력을 증원하면 좋겠음.
- 강연장소를 마을회관 등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하고 단순히 강연만 진행하기보다 인근 주민들의 재량을 펼칠 수 있는 문화공연의 장도 함께 열어 흥겨운 마당으로 만들면 좋겠음.

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대한민국 관광의 보고 아산! (3분임)

공약 조정 심의	3-11	쌀조개섬 수상테마파크 조성
-------------	------	----------------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쌀조개섬 수상테마파크 조성
(변경후) 조정 내용 등	쌀조개섬(안성천) 생태수변공간 조성

○ 조정사유

- 관광단지 조성(쌀조개섬 및 배후단지)은 대규모사업으로 민간투자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나, 경기 불황으로 대규모 건설사의 관심 저조
- 대상지의 여건(농업진흥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쌀조개섬의 하천구역 제척 등)상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7	0	-	25	3	2	30
2차 조사	7	0	-				

■ 찬성의견

- 동네에 가까워서 내 자산의 가치가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고 접근성이 좋아 이용도 가능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음.
- 지형적으로 한강 이남에 있는 유일한 천변 섬임. 아름다운 섬을 잘 살렸으면 좋겠고 대규모 유락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 유지가 힘들 수

있음. 자연경관으로 유지하는 생태수변 공간 조성이 타당해 보임.

- 누구나 이용 가능한 체육 시설이 필요함. 둘레길이 아직은 허허벌판이라서 표식이 잘 나게 키가 큰 나무를 식재하기를 바람.
- 수상테마파크로 가면 오염 위험이 있음. 최대한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범위에서 하는 사업에 찬성함.

■ 반대의견

- 없음

■ 기타의견

- 없음

■ 최종결론

- 분임토의 1, 2차 투표 결과 조정안에 배심원 7명 전원이 찬성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5명이 찬성, 3명이 반대, 2명이 기권해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
이행 평가

3-2

곡교천변을 활용한 '복합 체육여가공간'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 공약사업 개요

- 사업명 : 곡교천변을 활용한 '복합체육 여가공간'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 위치 : 곡교천변 일원
- 사업량 : 마스터플랜 수립 1식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총사업비 : 0.5억 원 (시비 0.5억 원)
 - 2019년 : 0.5억 원 (시비 0.5억 원)
- 공약달성 최종목표 :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 시민배심원단 권고안

- 은행나무 길은 정비가 잘 되어 있지만 반대편은 주변 경관 정리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은행나무 반대편은 진출입로가 위험해서 개선해야 할 것임.
- 시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잔디를 심고 산책할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정주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중요할 것임.
- 집중호우나 홍수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겠음.

■ 제안이유

- 은행나무 길은 정비가 잘 되어 있지만 반대편은 주변 경관 정리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음. 교통편도 불편하고 주변 경관이 정리가 되지 않아 이용률이 떨어짐

■ 공약사업 개요

- 아산시 스포츠 포털을 이용한 생활체육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차별 없는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 민간체육시설 이용 확대(태권도 도장 등)
- 총사업비 : 139억 원 (사업기간 2018. 7. ~ 2022. 12.)
- 2019년 : 30.1억 원 (국비 6.7억, 도비 2.4억, 시비 21억 원)
- 공약달성 최종목표 : 1인 1생활체육 플랫폼 시행

■ 시민배심원단 권고안

-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지역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체육 시설 프로그램 개설을 하면 좋겠음.

■ 제안이유

-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지금 있는 프로그램과 제도를 모르는 시민이 의외로 많음. 제대로 된 홍보를 통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누렸으면 함.
- 지역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체육 시설 프로그램 개설을 하면 좋겠음.
 - 일방적인 운영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음

공약
이행 평가

3-5

아산 둘레길 단계별 조성

■ 공약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
- 사업위치 : 숲길, 마을길, 하천변 등을 둘레길로 연결
- 총사업비 : 14.5억원(2019년 2.25억 원)
- 사업내용 : 유형별 둘레길 조성
 - 등산로 중심 : 기존 등산로, 산성, 임도 중심의 산지형 둘레길
 - 하천변 중심 : 하천 등 천변길 중심의 전원·풍광형 둘레길
 - 저수지 중심 : 저수지 등과 연계한 수변 둘레길
 - 스토리 중심 : 문화유적, 인문학적 스토리텔링 연계 백의종군길
 - 생활권 중심 : 뒷동산 등 생활권 주변 산책길
- 공약달성 최종목표 : 6개 노선 150km 정비보완

■ 시민배심원단 권고안

- 둘레길의 특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신정호처럼 걷기 대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이 다시 찾게 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둘레길 구간 완주 스탬프를 건의하며 아산사랑 상품권 등의 소소한 재미를 주어 참여를 권장하고 둘레길을 더 찾게 할 필요가 있음.
- 타도시의 모범 사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시민의 둘레길 걷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함.

■ 제안이유

- 둘레길의 특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개죽산 황토길처럼 특화되면 아산시의 홍보도 되고 시민도 더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라. 은행나무 길 달 밝은 밤 (4분임)

공약 조정 심의	4-12(2)	친환경 농산물광역물류센터 유치
-------------	---------	------------------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친환경 광역농산물 물류센터 유치
(변경후) 조정 내용 등	『아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 조정사유

- 광역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유치 불가능
 -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신규설치 계획 미정
 - 충청남도 광역통합지원센터 유치 실패(부여군 선정)
- 정부 및 충청남도 시설은 농협중앙회 등 민간에서 운영하므로 지역 경제 유발효과, 농가소득 증대효과 등 직접 효과 부족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1	-	25	4	1	30
2차 조사	5	1	-				

■ 찬성의견

- 조정 자체에는 찬성함. 다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업을 그때그때 수정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검토하여 시스템과 규모적인 부분을 현실화 하는 것이 좋겠음.

- 사업 목표와 내용의 변경에 대하여는 찬성하지만, 당초계획의 부지 규모(2만평)와 변경 안 부지의 규모(6천평)를 비교하면 너무 축소가 된 부분이 있음. 당초 계획만큼의 부지확보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조리장과, 저온저장고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규모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임.
- 학교 외 급식지원이 부실한 곳에 지원되는 것뿐만 아니라, 로컬 푸드장과 친환경 농가육성도 지원이 된다고 하니 변경 안에 찬성함.

■ 반대의견

- 없음

■ 기타의견

- 고령화 사회로 진행될수록 먹거리 관련 복지지원 서비스의 규모가 늘어날 텐데 현재의 계획규모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현실적인 규모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겠음.
-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증축을 고려한다고 하였는데 계획 단계에서부터 규모 확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당초계획이 도의 사정으로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결정된 안전이기에 시민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길 바람.
- 무조건 규모를 너무 크게 짓는 것 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면적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음.
- 하나의 사업이라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음. 친환경 농가 육성 사업은 별도로 진행하고 급식지원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최종결론

- 분임토의 1, 2차 투표 결과 조정안에 배심원 중 5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5명이 찬성, 4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해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
이행 평가

48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임기내 15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

■ 공약사업 개요

- 사업장소 : 공원·녹지, 택지 및 공단조성지, 도로변, 하천변 등 공한지
- 추진기간 : 2018. 7. ~ 2022. 6.
- 총사업비 : 99억 원 (국비 39.5억 원, 도비 13.7억 원, 시비 45.8억 원)
 - 2019년 : 39억 원 (국비 14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20억 원)
- 공약달성 최종목표 : 150만 그루 나무심기를 통해 각종 개발 및 도시화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시민배심원단 권고안

- 나무의 양적 증대에 중요하지만 관리미흡으로 인한 미관상의 문제나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예산의 증액을 통해 질적인 관리감독이 꼭 해야 할 것임.
-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떨어지는 낙엽수보다는 도시미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교목같은 침엽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침엽수의 단점인 겨울철 그늘로 인한 빙판위험성은 도로관리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수종을 다양화하면서도 환경과 미관의 안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은행나무가 시목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심기보다는 특정지역을 은행나무길 조성을 통해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생활 거주지역은 다른 나무로 교체하여 진행하면 좋겠음.

■ 기타의견

- 겨울철에도 버틸 수 있는 수종을 개량할 수 있는 방안이 범국가적으로 필요함.

■ 공약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
- 총사업비 : 69.5억 원 (도비 8.4 시비 61.2)
 - 2019년 : 6.5억 원 (시비 6.5)
- 주요내용 : 공공급식(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1식/1일)
 - 사업량 : 어린이집(425개소 13,638명), 지역아동센터(39개소 1,123명)
- 공약달성 최종목표 :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친환경 급식 확대

■ 시민배심원단 권고안

- 시지원금으로 식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아산시의 판매처와 아산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우선 구입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조리사가 있기 때문에 조리를 해서 지원하기보다는 원물로 지원하는 것이 좋으며 시지원금도 식비에 책정된 만큼 원물로 제공하면 좋겠음.
- 공급 지원체계가 미정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수요파악과 지원형태를 명확하게 정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아산시의 친환경농가가 7%로 대량 생산·소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체 공급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임.
- 굳이 친환경이라는 기준에 얽매이기보다 좋은 품질의 먹거리를 아산시민에게 공급하겠다는 목표에 방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음.

■ 제안이유

- 시지원금으로 식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아산시의 판매처와 아산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우선 구입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지역 내 농산물 소비독려 측면과 저렴한 식재료와 물품 구비로 아낀 지원금을 연말에 다 쓰지 못하여 쓸데없이 낭비하는 측면도 막을 수 있다고 봄.

■ 공약사업 개요

- 위 치 : 금곡천 합류부~곡교천 합류부(모종동, 신동, 풍기동, 남동)
- 사업규모 : 생태하천 조성 L=4.0km
- 사업기간 : 2016 ~ 2021
- 총사업비 : 308억 원 (국비 154억 원, 시비 154억 원)
 - 2019년 : 5.3억 원 (국비 5.3억 원)
- 공약달성 최종목표 :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 시민배심원단 권고안

- 주변 지역 주민들이 사유지처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할 것임.
- 자연보존을 최우선 목표로 진행하며 하천변 체육시설은 지양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산책로와 휴식 공간 조성 정도만 진행하도록 할 것임.
- 정비가 제대로 하여 시민들이 아름다운 하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마. 시샘 (5분임)

공약 이행 평가	5-2	도시재생의 차질없는 추진
-------------	-----	---------------

■ 공약사업 개요

- 위 치 : 온천동, 실옥동 일원
- 면 적 : 160,225m²
- 총사업비 : 1,167억원(국 100, 도 20, 시 47, 기타 1,000)
 - 2019년 : 66.5억 원 (국비 39.9억 원, 도비 8.0억 원, 시비 18.6억 원)
- 사업기간 : 2019. ~ 2022.
- 공약달성 최종목표 : 공모선정 및 보육·교육시설 준공

■ 시민배심원단 권고안

- 핵심적인 목적보다는 다양한 사업의 확장시도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낮고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명확한 사업목적과 사업진행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과 소규모극장을 만들어 주민들과 다른 지자체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집중이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여성성평등의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음. 온양행궁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역사재현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개발과 재생사업의 내용이 생소하기 때문에 재생사업의 '재생'이라는 단어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인식개선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원주민인 유흥업소들도 생계를 위한 일이고 개인사유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고 진행하기에는 모순이 있으며 이를 위해 계도나 계몽을 통해 더 이탈되지 않는 장소로 지도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해야 할 것임.
- 기존의 재생 현황부스 사용빈도가 낮고 경제활동활성화, 청년창업, 체험 공간 등 진행 중인 사업이 많지만 실제로 정보를 알고 이용하는 시민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기존의 사용하지 않고 버려져 있는 공간을 재사용하는 방안을 간구해야 할 것임.

공약
이행 평가

5-10

풍기역(가칭) 신설 추진

■ 공약사업 개요

- 사업내용 : 풍기역(가칭) 신설사업
- 위 치 : 온양온천역과 배방역 사이
- 사업규모 : 역사 1개동, 고상홈 2개소
- 총사업비 : 247억 원(보상비, 영업손실 보전 제외)
- 공약달성 최종목표 : 풍기역(가칭) 신설 확정

■ 시민배심원단 권고안

- 수요에 비해 교통 접근의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전철을 신설하면 이순신빙상장, 운동장, 체육관들의 이용이 늘어나 미래의 접근성이 원활해질 것이며 적자가 예상되지 않는 사업의 지속성과 인프라 확정을 위해서 전철의 신설이 필요할 것임.
- 신설할 역의 접근성을 높기 위해 마을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신설도 필요할 것임.

■ 공약사업 개요

- 위 치 : 장존동 ~ 송악면 외암리 일원(국도39호선)
- 사 업 량 : 도로 확장(2→4차로), L=1.60km
 - 1구간 : 장존~외암삼거리, L=1.07km, 149억원
 - 2구간 : 외암삼거리~외암마을, L=0.53km, 86억원
- 사 업 비 : 235억 원
- 사업기간 : 2017. ~ 2022.
- 공약달성 최종목표 : 도로준공 및 사용 개시

■ 시민배심원단 권고안

- 천안 예산 아산에서 외암마을로 가는 부분의 병목현상이 발생하며 아산 시로 들어올 때 표지판이 없어 초행길의 경우 불법유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입간판을 설치해야 할 것임.

공약
이행 평가

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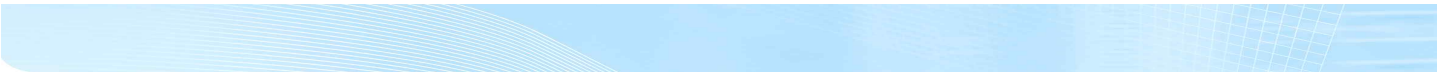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장 확대조성

■ 공약사업 개요

- 위 치 : 아산시 온양온천시장(온천동 41-2번지 외)
- 사 업 량 : 대지 - 2,588㎡ , 연면적 - 2,500평(지상5층)
- 총사업비 : 150억 원 (국비 66억 , 시비 84억)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공약달성 최종목표 : 1층 창업공간, 2층 고객지원 및 힐링센터 등,
3~5층 주차타워를 갖춘 복합지원센터 준공

■ 시민배심원단 권고안

- 공중화장실 시민로 시청으로 가는 길 옆으로 진출입시 병목현상이 우려 되기 때문에 진출입의 이원화가 필요할 것임.
-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과 함께 상인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자체 모니터링단 결성, 우수업체 선정 시 아산신문을 통한 홍보 및 상품권 증정, 우수업체 표시 등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할 것임.
- 시장 살리기 대책으로 대형마트를 입점하여 야채농산물은 상인에게, 공산품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여 구매부터 계산까지의 일괄쇼핑이 가능한 통일된 시스템이 필요할 것임.
- 온양온천시장만의 특징으로 로컬 푸드, 키즈카페 무료운영, 다른 마트와의 차별화 등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할 것임.
- 철거부지의 주차타워에 공공시설 입주를 통해 시장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제5장
시민배심원 활동 후기

제5장 시민배심원 활동 후기

분임별 소감나누기

- 회의를 마치고 진행된 ‘소감나누기’에서 제시된 의견임.

부영이 (1분임)

위원1 할 말을 다 해서 후련하다.

위원2 아직 아는 게 없다.

위원3 많이 배우고 느끼게 된다.

위원4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것이 많구나 생각했다.

위원5 비로소 아산시민의 한 사람이 된 느낌이다.

복지천국 (2분임)

위원1 처음 접해 보니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잘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그에 상응해서 열심히 해 봅시다.

위원2 공무원들에게 불만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위원3 질문들 하시는 모습들 보니 나도 더 열심히 질문을 해야겠다 싶습니다.
좋았습니다.

위원4 몰랐던 부분들을 속속들이 알게 되어 좋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위원5 많이 힘들었습니다. 괜히 왔나 했었는데 많이 배우고 갑니다.

위원6 아산시를 잘 몰랐는데 아산시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배웠습니다.

위원7 공부를 하지 않고 와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여자공무원들이 훨씬 뛰어
났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대한민국 관광의 보고 아산! (3분임)

위원1 실제적 현황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위원2 열심히 준비해 온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 있었다. 자료의 충분성
과 제대로 설명을 못해줘서 아쉬웠다.

위원3 몰랐던 부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좋았다.

위원4 몰랐던 공약에 대해 알게 되었고 공무원의 성실한 자세가 좋았다.

위원5 10년째 아파트 통장 일을 보았다. 공무원은 문제가 되는 것은 하지 않으
려는 경향이 있다. 상대적으로 일반 민원인에게는 불친절한데 참여도를
이끈 이 회의가 만족스럽다.

위원6 공약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질문을 하면 성실히 응답해 주어 고맷다. 그런데 내 지역의 사안이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된 응답을 받지 못해서 무책임하게 느껴졌다.

은행나무 길 달 밝은 밤 (4분임)

위원1 생소하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위원2 재미있었다.

위원3 사업의 계획 규모가 당초보다 너무 작아진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 의문이 생긴 안건이 있었다.

위원4 시민 배심원을 함으로써 몰랐던 공약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궁금한 점이 많이 풀렸다.

위원5 너무 생소한 분야를 토의하니 질의하기가 어려웠다. 전문분야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위원6 좋았다.

시샘 (5분임)

위원1 재미있고 흥미도 있다. 풍기역 담당공무원은 사업내용 결정된 사항이 없고 사업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없어서 조금은 아쉬웠다.

위원2 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 좋았고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어 좋았다.

위원3 10점 만점에 8점정도 점수를 드리고 싶고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해주 시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좋았다.

위원4 국비를 따기 위해 노력하신 내용이 체감으로 다가와 좋았다.

위원5 공무원 하면 편견이 많이 있었는데 지역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 고맙다.

위원6 자료를 들고 오셔서 노력하는 부분이 보였고 사업내용에 대한 질문에 성 실히 답변해 주는 모습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위원7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다. 사업설명을 바로 듣고 궁금한 부분이 바 로 해소 된 점이 좋았다.

위원8 사업설명회의 기존내용이 아닌 배심원이 직접 질문을 하고 사업에 대해 담당공무원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다만 사업의 진행에 있어 어떤 일련의 일들로 인해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하여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못한 풍기역내용의 설명회는 조금 아쉽다.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지방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정책, 지방자치예산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안성호, 2018).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 지칭되는 자동화 로봇화 등 기술의 혁명적 진보로 인해 노동의 투입감소율이 자본의 투입감소율보다 큰 형태의 노동절약형 기술 진보(labor saving technical progress)가 사회양극화를 확대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노동친화적 기술 진보'로 정책 선회는 21세기 지방정부의 커다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에 기반한 지역 간 획일성에 더 익숙한 우리사회의 역사·문화적 경험은 지방자치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방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역의 다양화 및 시민들의 자기실현(self-actualization)을 보장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민선7기 체제에 접어들면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제안으로 실시되는 공약실천계획서 작성과 공개 및 조정공약 적정 여부 심의와 공약 이행 과정에 대한 평가는 복잡하고 과편화된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협력하는 '공동창조자(cocreator)로 참여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제안하는 '지방정부 3.0'은 협력(collaboration)과 국가(nation)의 합성어인 콜라보네이션(Collabonation)이다. 이는 더 이상 국가, 시장, 시민으로 대표되는 사회 주체 중 어느 하나의 주도로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이는 여러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소유한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적 노력(concerted)과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심화 등에 대한 제안이다.

사회학자 제임스 슈로비키(James Surowiecki)는 그의 저서 '군중의 지혜(The Wisdom of Crowds)'를 통해 그룹은 개인보다 신뢰성이 높고, 의견을 수렴하는 속도가 빠르며, '조정(Coordination)'과 '협동(Cooperation)'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21세기 지방행정에서 직접민주주의와 거버넌스는 시민들의 삶을 중심에 놓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불일치(不一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구비례에 의하여 선발된 시민배심원 운영은 공약 이행 점점 과정에서 민주적인 정당성 확보와 함께 기술의 혁명적 진보에 의한 산업 구조 재편, 인구구조 변화, 내외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목표 변경, 사업기간 재설정 등의 안전에 대한 결론을 합리적으로 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의 공공성과 지역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Value), 그리고 철학(Philosophy)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배심원의 운영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시켜가는 과정이었다. 주민들의 지역과 행정에 대한 관심 제고와 타인에 대한 배려 및 다양성 존중 등은 아산시의 발전에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부록

1. 1차 회의 교육자료

1차 회의 교육자료

매니페스토 운동과 아산시 시민배심원

2019. 11. 15.



목 차

I .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 재정립

II . 매니페스토운동과 민주주의

III . 속의민주주의와 시민배심원

IV . 시민배심원 운영의 개요

민주주의

권력과 권한, 민주적 통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정부

선출직 공직자, 권한의 위임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I .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 재정립

선거공약

임기 4년의
고용계약서



II . 매니페스토운동과 민주주의

매니페스토의 어원

- 라틴어의 마니페스투스(manifestus)에서 유래 : '증거' 또는 '증거물'이라는 의미로 쓰임
- 이탈리아어의 마니페스토(manifesto) :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

1834년 영국 보수당 당수 로버트 필(Robert Peel)

- 영국 탐워스(Tamworth) 지방선거에서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보수당 당수 로버트 필의 선언에서 시작된 선거공약집

1997년 영국 노동당 토니 블레어 (Tony Blair)

- 1997년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 매니페스토는 당시 나이 마흔넷이었던 토니 블레어를 수상에 올리면서 매니페스토의 대명사가 됨



II . 매니페스토운동과 민주주의

막연한 약속 vs 구체적 약속
 소수만 알도록 vs 모두가 알도록
 말로만 선언 vs 문서로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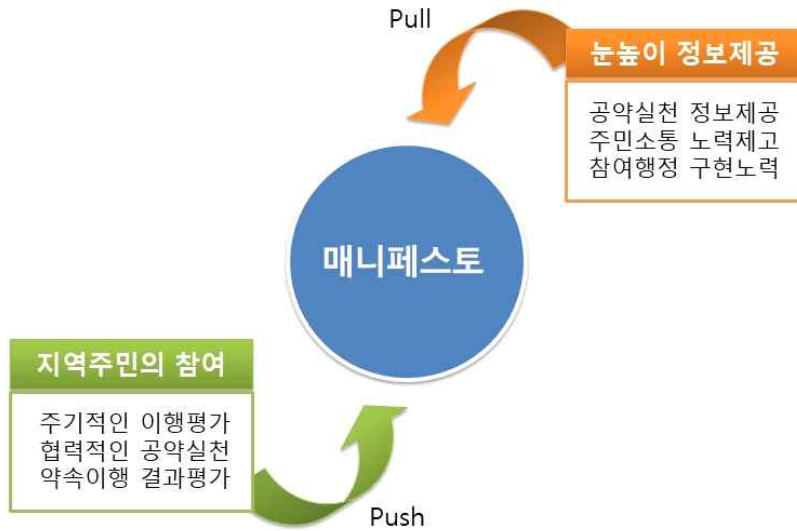
II . 매니페스토운동과 민주주의

- 철학과 시대소명에 따른 선택과 집중 : 도전과 열정, 영혼이 깃든 책임공약
- 실행원칙과 그에 따른 우선순위 : 이것도 저것도 하겠다는 공약이 아닌 이것만은 꼭!
- 핵심과제와 자원조달방안 : 왜(why), 무엇을(what), 어떻게(how) 할 것인지
- 세부실천과제 : 핵심과제와 실행원칙,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도표화



II. 매니페스토운동과 민주주의

실천과 검증



III. 속의민주주의와 시민배심원

반쪽 짜리 엘리트 민주주의, 비정상 민주주의를 넘어

불가능해. 누가 오겠어?

시민들이 뭘 알겠어?

신분상승의 상징 '국회의원' 특권(200여개)
 월평균 월급 941만원(연봉 1억 1300만원)

- 친척의원 매월 120만원 지원(2월 법인통과)
- 기본급(봉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 월 520만원
- 매월 지급되는 임명활동비(180만원)
- 가계지원비(86만원), 관리업무수당(46만원)
- 특별활동비+상여금+정근수당+경실 휴가비+연간 114만원
- 국회의원회관내 사무실 제공, 의정활동지원 보좌진 6명 제공
- KTX 및 국유철도와 선박, 항공기 무료 사용
- 회기 중 현행법 제외하고 불체포특권
- 후원회 조직 매년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 모금

자료/국회 사무처



Ⅲ . 속의민주주의와 시민배심원

속의민주주의의 국내 사례

인구대표성,
민주성,
판단의 공정성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과정 소감

“학교 졸업 뒤 이런 토론 처음...기성세대와 청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자리”
김정숙(67·여)

“원자력 분야에서 일했는데 일반 시민들의 질문 수준이 전문가 뺨칠 정도로 높아 깜짝 놀랐다”
차원경(63·남)

“의미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수용할 수 있다”
조원영(39·남)

“보통 공청회는 이수라장이 되기 일쑤인데 이번엔 대화를 통해 많은 걸 배웠고 생각도 바뀌었다”
김용혁(52·남)

“편파적인 부분이 없었고 민주적으로 진행됐다. 공론화 의미가 헛되지 않길 바란다”
김경애(82·여)

- 시민대표 500명 중 471명 합숙
- 야유 냉소 없이 양쪽 의견 경청

Ⅲ . 속의민주주의와 시민배심원

속의민주주의의 해외 사례

-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洲) 정부는 지난 2004년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일반 시민들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시민의회(BCCA : British Columbia Citizens' Assembly)'를 구성
- 시민의회는 주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법안을 작성하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11개월 동안의 토론 과정을 거쳐 새로운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주민투표에 회부



Ⅲ. 속의민주주의와 시민배심원

속의민주주의 등장의 의미

- ①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 ② 의사결정의 질 향상 (여론조사 vs 공론조사)
- ③ 이웃,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 ④ 사적이익과 공적이익 간의 균형과 조화
- ⑤ 협력적 거버넌스 (정치 및 행정에 대한 관심 제고와 주민과 행정간 협력적 관계 개선)



Ⅳ. 시민배심원 운영의 개요

공약실천계획서



“민선7기 시정 사용설명서”



공약의 구체화 내용 심의
(공약의 구체화 내용 보고 및 확정)

공약의 조정내역 심의

배심원 운영의 목적과 의의



IV . 시민배심원 운영의 개요

회의 개요

회의일정 : 2019년 11월 15일(금), 11월 29일(금), 12월 13일(금)
 대 상 : 아산시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선발인원 : 시민배심원 40명
 구성방법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주최·주관 : 아산시·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심의범위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및 공약이행 평가



IV . 시민배심원 운영의 개요

추진방향

-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여 주민대표성과 참여기회의 평등성 확보
 - ① (1차) ARS(음성 응답 시스템)로 배심원 참여 의향을 밝힌 125명의 시민배심원 모집, (2차) 12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최종 40명 선발
 - ② 2차 전화면접을 통하여 단체장과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전현직 선출직공직자이거나 또는 현재 공무원 및 정당의 주요당직자로 근무 중에 있는 주민은 선발대상에 제외
 - ※ 1, 2차 예비회의에 불참한 배심원은 이후 배심원 회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원칙
- 최종 선발을 통하여 회의에 참여하는 배심원은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아산시의 공약 조정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 투표권 행사 및 일부 공약실천계획의 개선방안·아이디어를 마련할 수 있는 지위 부여
-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과 선호변경이 가능한 공론조사 방식의 토의 과정 채택
- 지자체 공약담당자는 심의 및 평가 안건(정책공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 운영관리에 있어 모든 절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며 시민배심원 스스로 운영하여 나가도록 유도
- 원활한 토의 진행을 돕기 위하여 분임별 촉진자(facilitator)도 함께 참여, 촉진자는 현장실무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
- 시민배심원 논의 결과와 지자체의 수용 여부는 일정기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시

IV . 시민배심원 운영의 개요

시민배심원 운영 과정



IV . 시민배심원 운영의 개요

1차 예비회의	11/15(금) 14:00 ~ 17: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장 수여 ○ 매니페스토 운동과 시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배심원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 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2차 예비회의	11/29(금) 13:30 ~ 17:25	
분임활동	11/30~12/12	
본회의	12/13(금) 13:30 ~ 17:45	

IV . 시민배심원 운영의 개요

1차 예비회의	11/15(금) 14:00 ~ 17:55
2차 예비회의	11/29(금) 13:30 ~ 17:25
분임활동	11/30~12/12
본회의	12/13(금) 13:30 ~ 17:45

- 심의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배심원)
- 분임별로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배심원 질의에 대해 답변
- 설명 종료 후 배심원 자유 토의

IV . 시민배심원 운영의 개요

1차 예비회의	11/15(금) 14:00 ~ 17:55
2차 예비회의	11/29(금) 13:30 ~ 17:25
분임활동	11/30~12/12
본회의	12/13(금) 13:30 ~ 17:45

- 주관 부서 담당자와의 심층면담
- 현장조사
- ※ 필요시 자율적으로 진행

IV . 시민배심원 운영의 개요

1차 예비회의	11/15(금) 14:00 ~ 17:55
2차 예비회의	11/29(금) 13:30 ~ 17:25
분임활동	11/30~12/12
본회의	12/13(금) 13:30 ~ 17:45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찬반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 분임별 공약실천계획 평가 : 공약의 장점, 실천계획 문제점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 (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참석자 과반 찬성 시 승인)
 - 공약실천계획 평가 : 전체 배심원 합의로 분임권고안 최종 승인

IV . 시민배심원 운영의 개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



감사합니다



2. 3차 회의 교육자료

3차 (본회의)

아산시 시민배심원 본회의 진행 설명

2019.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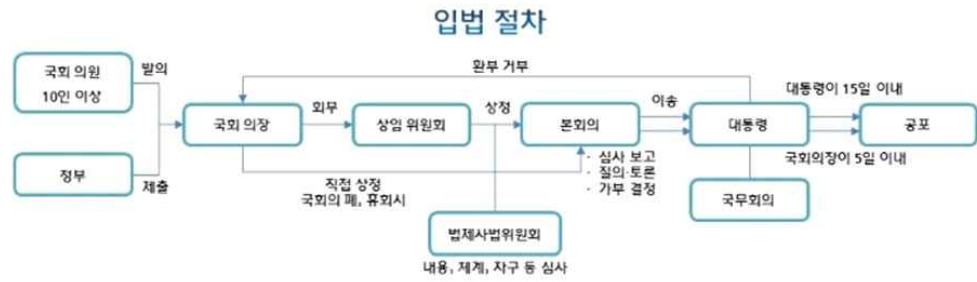
Manifesto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Manifesto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1

국회 입법과정과 입법 절차



- ① 제안
- ⑥ 본회의 심의·의결
- ② 회부
- ⑦ 정부 이송
- ③ 상임위원회 심사
- ⑧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④ 법제사법위원회 내용·체계·자구 심사
- ⑨ 공포
- ⑤ 전원위원회

시민배심원 회의 진행과정과 절차



본회의, 배심원의 태도 (자세)

경청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존중

다른 사람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존중해 줍니다

신뢰

활동과정에서 들은 중요한 비밀은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본회의, 배심원의 태도 (마음가짐)

우리는 시민을 대표해 공약 이행을 평가하고 조정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배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아산시를 위한 매우 중요한 권고사안입니다.
선입견을 내려 놓고 자신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공공성도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본회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역할)

공공성과 현재여건을 고려하여 공약 조정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해 주십시오.
 엄정한 재판관의 입장에서 아산시 전체의 공공성에 기반해 판단해 주십시오.



본회의, 어떻게 진행되는가

국회 소위 및 본회의 진행방식

분임토의 후 분임별 토의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발표
 분임별 투표 결과를 두고 배심원단 전체 투표로 최종 승인여부 결정

① 분임토의 : 분임별 안건 토의 (140분)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공약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② 전체회의 및 투표 (60분)

분임별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각 10분)

- 분임별 분임장 토의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토의결과 발표 7분, 질의응답 3분)
- 조정 심의 안건의 경우, 분임 미승인 안건에 대해 공약사업담당자 소명 기회 부여 (1분)

전체 시민배심원단 투표

- 조정 심의 안건은 분임 안건에 대한 전체 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참석자 과반 찬성)
- 공약 이행 평가 안건의 경우 배심원 재청 및 삼청으로 분임권고안 최종 승인

감사합니다


Manifesto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민선7기 공약이행점검을 위한
2019 아산시 시민배심원 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처 아산시
제 작 아산시
집 필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